

아르헨티나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4
외교관계 / 6
주한주재 국기관 / 8
한국과의 주요이슈 / 8

II. 경제

경제정책 /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0
주요 산업 동향 / 11
정보조사 자료원 / 13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15
무역통계 / 16
투자통계 / 21

IV. 출장가이드

기후 /	23
시차.근무시간 /	24
도량형 /	24
출입국.비자 /	25
환율.환전 /	27
물가정보 /	28
교통.통신 /	30
호텔.식당 /	32
관공서 관행 /	37
공휴일 /	38
여행시 유의사항 /	38
유용한 연락처 /	40
관광명소 /	41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7
수입규제제도 /	50
관세제도 /	54
주요인증제도 /	57
지적재산권 /	58
소비자보호제도 /	60
교역관련 국가기관 /	61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62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3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64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64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70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71
운송 /	73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74
유형별 분쟁사례 /	75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76

우리기업 투자동향 / 77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78

투자인센티브 / 80

타당성조사 / 83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84

입지선정 / 86

공장 설립 / 91

투자관련 정부기관 / 91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92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93

조세제도 / 94

외환관리 / 96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9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아르헨티나 (Argentina)
국 체	공화국 (23 개 주(州)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수도로 구성)
위 치	남위 23 ~ 55 도, 서경 54 ~ 74 도 (서쪽은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 북쪽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동쪽은 브라질, 우루과이, 남쪽은 남대서양과 접경)
면 적	2,791,810 km ² (세계 8 위, 한반도의 12.6 배 크기)
기 후	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 * 4계절이 있고, 한국과 반대(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
수 도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인구 278만 명 * 수도권 인구는 1,383만 명
인 구	3,859 만 명(남 49%, 여 51%)
주요도시	코르도바(307 만 명), 산타페(300 만 명), 멘도사(158 만 명)
민족(인종)	백인 95%, 메스티조 4.5%, 원주민 0.5%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로마카톨릭교 (93%)
건국일	1816 년 7 월 9 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임기 4 년, 1 차에 한해 재임 가능)
국가원수 (실권자)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Nestor Kirchner) 대통령 (취임일: 2003. 5. 25) (2003. 4.27 대선에서 2위 차지 후 1위인 메넴(Menem) 후보의 결선투표 사퇴로 당선)
의 회	상·하 양원제 (상원 72 석, 하원 257 석) 상원 임기 6년, 하원 임기 4년으로 2년마다 중간선거 실시 교체
정 당	승리를 위한 전선 (FV), 정의당 (PJ/페론당), 급진당 (UCR), 공화제안당 (PRO), 평등 공화국을 위한 대안 (ARI)
화폐단위	페소 (2006. 8.23 기준 US\$ 1 = 3.10 페소)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아르헨 개발조사원(FIDE) 자료 종합

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GDP	US\$억	1,263.6	1,512.4	1,808.1	1,898.8(전망)
경제성장률	%	8.8	9.0	9.2	8.6(1 분기)
1 인당 GDP	US\$	3,380	3,980	4,991	4,715(1 분기)
수출	US\$억	299.4	345.5	400.1	253.4(7 월)
수입	US\$억	138.5	224.5	286.9	127.5(7 월)
경상수지	US\$억	76.6	32.8	54.1	11.8(1 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	3.7	6.1	12.3	10.6(7 월)
실업률	%	14.5	12.1	10.1	11.4(3 월)
외환보유고	US\$억	141.2	196.5	280.1	262.2(7 월)
외채(GDP 대비)	%	128.6	112.5	64.3	52.1(1 분기)
대미 환율	Peso/US\$	2.95	2.94	2.92	3.08(7 월)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중앙은행 최신자료

다. 한-아르헨티나 관계

체결협정	문화협정(1970), 상용복수비자 협정(1992), 투자보장 협정(1994), 범죄인 인도 협정(1995), 원자력협력 협정(1996), 항공업무협력 협정(1996), 과학 기술협력 협정(2000), 수산기술협력 약정(2003), 경제무역협력 협정 및 개정문화 협정 서명(2004) 등
교역규모	- 수출 : (03) US\$1.6 억(213.7%) ⇒ (04) US\$2.4 억(48.1%) ⇒ (05) US\$3.1 억(29.2%) ⇒ (06. 1~6 월) US\$ 1.7 억(44.8%) - 수입 : (03) US\$4.7 억(23.2%) ⇒ (04) US\$4.2 억(-3.2%) ⇒ (05) US\$3.7억(-11.8%) ⇒ (06. 1~6월) US\$2.7억(40.3%)
주요교역품목	- 수출 : 가전제품, 합성수지, 자동차, 식물 - 수입 : 동광, 대두유, 사료, 소가죽, 어류
투자규모	- 대 아르헨티나 투자: 41 건, US\$1 억 4,260 만 (2006. 6 월 신고기준) - 아르헨티나의 한국투자: 없음
교 민	3 만 5 천명(1998 년) ⇒ 2 만 명(2006 년)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투자통계, KOTIS, 대사관 자료 등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국가조직

1) 행정부

- 정부기구 : 대통령, 수석조정장관(총리), 10개 부처
 - 대통령실(Presidencia de la Nacion)
 - 수석조정장관(Jefatura de Gabinete de Ministros)
 -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 외교통상중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Comercio Internacional y Culto)
 -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 경제생산부(Ministerio de Economía y Producción)
 - 연방기획, 공공투자 및 서비스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Federal, Inversión Pública y Servicios)
 - 법무·치안 및 인권부 (Ministerio de Justicia, Seguridad y Derechos Humanos)
 - 노동 고용 및 사회보장부(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보건환경부(Ministerio de Salud y Ambiente)
 - 사회개발부(Ministerio de Desarrollo Social)
 - 교육과학기술부(Ministerio de Educación, Ciencia y Tecnología)

2) 지방행정

- 1개 연방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 및 23개 주(provincia)로 구성됨.
 - 각 주(연방수도)는 독자적인 행정권, 사법권 및 자치적인 주 의회를 갖고 있음.

3) 입법부

- '83년 10월 총선으로 상원(Camara de Senadores) 및 하원(Camara de Diputados)으로 구성된 민선의회가 출범하였음.
- 양원제(상원 72석, 하원 257석)로 하원은 임기 4년으로 직접선거로 피선되며, 하원의 반수를 매 2년마다 교체한다. 상원은 임기 6년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해 피선되며, 상원의 1/3의 석을 매 2년마다 교체함.
 - 상원의원의 경우 주 별로 득표율 1당이 2석, 2당이 1석을 차지함.
- 각 주마다 3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며(24개 주 x 3명 = 72명), 하원의원은 각 주로 부터 인구비례(주민 3만3천명 당 1명의 의원)로 선출됨.
 - '94년 개정헌법에 의해 2001년 10월 국민 직접선거로 전체 상원의원 재 선출

4) 사법부

- 법원 제도 : 지방법원(주법원), 연방고등법원, 연방대법원의 3심제
- 법원 조직 : 대법원은 9명으로 대법원장, 부대법원장, 대법관 등이 있음.

나. 정치제도

- 정당 별 의원현황 (2005년 10월 23일 총선 결과)

정당명	하원	상원	비 고
승리를 위한 전선 (FV; Frente para la Victoria)	45	11	
정의당 (페론당) (PJ; Partido Justicialista)	86	27	* 친 키르츠네르파 하원 46석, 상원 23석 * 반 키르츠네르파 하원 40석, 상원 4석
급진당 (UCR; Union Civica Radical)	39	17	
공화제안당 (PRO; Propuesta Republicana)	14	-	
평등공화국을 위한 대안(ARI)	13	-	
기타	60	17	* 친 키르츠네르파 하원 16석, 상원 8석 * 반 키르츠네르파 하원 44석, 상원 9석
계	257	72	

- 정치현안
 - 2007년 10월 대선 및 상하원 선거(상원 1/3, 하원 1/2 교체)가 있음

3. 주요 인사

< 수석국무장관(총리격) >

- 성명: Alberto Angel Fernandez
- 취임일: 2003. 5. 25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끼르츠네르 대통령의 오른팔임

< 내무부장관 >

- 성명: Anibal Domingo Fernandez
- 취임일: 2003. 5. 25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의 킬메스(Quilmes)
- 전공: 법학 및 회계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Quilmes 시장 역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노동부 장관 및 두알데 전임 대통령 생산부 장관 역임

< 외교통상부장관 >

- 성명: Jorge Enrique Taiana
- 취임일: 2005
- 출신지: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 전공: 사회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국방부장관 >

- 성명: Nilda Celia Garre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 취임일: 2005
- 전공: 법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경제·생산부장관 >

- 성명: Felisa Josefina Miceli
- 취임일: 2005. 12. 1
- 전공: 경제학 (부에노스아이레스대)
-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장(2003. 6. 2 ~ 2005.11.30) 역임

< 연방기획·공공투자부장관 >

- 성명: Julio Miguel De Vido
- 취임일: 2003. 5. 25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 전공: 건축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법무·보안·인권부장관 >

- 성명: Alberto Juan Bautista Iribarne
- 취임일: 2005. 7. 26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 전공: 법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교육부장관 >

- 성명: Daniel Fernando Filmus
- 취임일: 2003. 5. 25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 전공: 사회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교육국장 역임

< 노동부장관 >

- 성명: Carlos Alfonso Tomada
- 취임일: 2003. 5. 25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 전공: 법학 및 사회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 두알데 전 대통령 국제노동기구(ILO) 자문 역임

< 보건부장관 >

- 성명: Gines Gonzalez Garcia
- 취임일: 2003. 5. 25
- 출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산 니콜라스 (San Nicolas)
- 전공: 외과의학
- 정당: 정의당 (PJ당/페론당)
- 현직 의사 및 교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보건부장관 역임

< 사회개발부장관 >

- 성명 : Alicia Margarita Kirchner
- 취임일: 2006. 8월
- 출신지: 산타크루스 주 수도인 리오 가제고스(Rio Gallegos)
- 전공: 교직 및 사회학
- *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친 동생으로 산타크루스 주 상원의원

< 기타 주요 인사 (대통령 직속 기구) >

- 비서실장: Oscar Isidro Jose Parrilli
- 법제처장: Carlos Zanini
- 문화통신처장: Jose Nun
- 국가정보처장 (SIDE): Hector Icazuriaga
- 스포츠처장: Claudio Alberto Morresi
- 관광처장: Enrique Meyer

4. 외교관계

가. 외교 기본 원칙

- 아르헨티나 외교노선의 주요 방침은 안전과 복리에 위협이 되지 않는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국가간 불간섭 원칙유지, 조약·협정·국제기구 결의사항·국제의무 준수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다.
- 2003 년 취임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현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를 메르코수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두고 미국과 유럽과는 보다 신중한 외교관계를 보이고 있다.

나. 국가별 외교 현황

1) 메르코수르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 아르헨 정부는 메르코수르 회원국과의 외교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 메르코수르 회원국 4 개국과 베네수엘라는 미국, 멕시코가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에 농산물 보조금 문제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우루과이와는 펄프공장 건설을 두고 환경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 미국

- 아르헨티나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친 서방 실리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 메넴 민선 정권 수립 후 1976 ~ 1983 년 군사정권 기간 중 인권문제 등으로 냉각되었던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기술 분야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 메넴 대통령은 미국을 수 차례 방문하였음은 물론 비 NATO 동맹국 지위를 1998 년 1 월 31 일 획득

3) 유럽

- 1982 년 포클랜드(말비나스) 분쟁 후 유럽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메넴 민선정부 집권 후 '90 년 영국과의 외교관계 회복, 유럽과의 통상 및 협력협정 체결
- 메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 양국관계는 포클랜드 전쟁 이후의 갈등을 해소

4) 베네수엘라와 경험관계 급진전

-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양국간 5억불의 경제협정 체결('05. 8월)
 - 베네수엘라는 '석유외교' 일환으로 아르헨 공채 매입, 유조선 4척 발주 등의 조치 취함
- 차베스 대통령, 아르헨티나와 핵 협정 체결 요청('05.10월)

5) BRICs 국가와 협력 강화 추진

- 러시아 :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하고, 러시아는 쇠고기, 과일 등의 시장개방 및 수입 확대 약속(2005. 10.18 제네바 회담)
- 중국
 - 키르초네르 대통령, '04년 6월 중국과 교역확대를 위해 250명 규모의 업체대표단과 중국을 방문,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
 - '04년 후진타오 주석의 아르헨티나 방문 시 통신, 열차, 주택 사회간접자본, 자원, 관광 등 5개 분야 197억 달러 규모의 투자약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
- 인도 : 인도의 대 아르헨 자원투자 확대 추세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전통적으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고,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
 - 1996. 8.26 KEDO에 2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1996.9.5 KEDO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
-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통상, 경제협력, 투자, 기술이전 등 실질 협력관계 심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90년대 들어 최초의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 실현 등 주요인사 교류 확대, 각종 협정 체결 및 양자협의체 회의 개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양국간 경제협정 체결 현황 >

- 1994. 5.17 투자보장 협정 서명(96.9.24 발효)
- 1996. 9. 9 원자력협력 협정(97.9.19 발효) 및 항공업무 협력협정 서명
- 2003.11. 7 한아 경제 공동위에서 비자면제 협의, 12월 발효
- 2004. 11.15 노무현 대통령 방아, 관세 및 상품 이동에 대한 상호 최혜국 대우, 경제무역협력 협정, 문화교육협력 협정, 에너지 광물자원협력약정, 한국 수출입 은행-아르헨티나 중앙은행간의 전대차관 지원 양해 각서, IT 정보 기술 협력 약정
- 체결 추진중인 협정 : 이중과세방지 협정, 어업 협정

5. 주한 주재국기관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천우빌딩 5 층 534, 우편번호 140-861
- 전 화 : (02) 797-0636(영사), (02)798-1145(상무)
- 팩 스 : (02) 792-5820
- 이 메 일 : embarcor@kornet.net
- 홈페이지 : www.embajadaargentinaencorea.org
- 공 관 장 : Alfredo A. Alcorta 대사
- 경제담당 : Carlos A. Fasciolo 공사
- 근무시간 : 월 ~ 금 09:00 ~ 17:00 Hs

자료원 : 아르헨티나 외교부(www.cancilleria.gov.ar)

6. 한국과의 주요이슈

- 한-MERCOSUR FTA 공동연구
 - 우리나라는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회의를 지난해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3차 회의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한 바 있다.
-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양국 간 협의 중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소극적임
- 반덤핑 규제: 폴리섬유 등 4건 규제 중(세부내용은 수입규제 현황 참조)
- 한-아르헨티나 자원협력
 - 양국 간 제1차 한-아르헨티나 자원 협력 위원회(2006. 6.21~23)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하였음

II. 경제

7. 경제정책

키르츠네르 현 정부는 지속적이고 균형된 안정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정책 3 대 기조는
 ▶ 재정 흑자 유지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 환율 정책 ▶ 수입대체품 생산을 통한 재
 공업화 장려이다.

가. 고환율 정책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수출촉진 및 수입감소를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를 목적으로
 미화 환율을 3.0 페소로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 중이다.

- 특히 브라질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브라질 헤알(Real)화 환율 변화에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 위험요소보다도 환율 방어를 통한 수입 확대 제어 및 수출 촉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나. 재정흑자

- 실업 및 빈곤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 운용을 위해 재정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정흑자를 활용하여 환율방어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수입대체품 생산을 통한 재 공업화 장려

-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력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 수입 대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위 3 대 핵심 경제정책 이외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성향 및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다.

1) 인플레이 잡기

-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2005 년 12.3%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안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플레이 잡기 정책으로 ‘가격 안정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 물가 상승 요인으로서는 정부가 환율하락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발생한 시중 화폐 유통량 확대 및 재정지출 확대가 지목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 정책의 하나로 주요 산업계 및 유통업체와 가격동결을 약속하는 ‘가격 안정화 협약’ 체결을 강화하고 있다.

2) 저 금리 정책

- 물가상승 억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저 금리 정책 시행

3) 내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

- 소프트웨어, BT, 광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 수도, 전기 등 민간 공공요금 동결 정책 시행으로 수도사업의 경우 프랑스 수에즈 그룹 철수 등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4)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증가를 추진이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성장: 아르헨티나 경제는 안정 성장세 진입

- (2003) 8.8% → (2004) 9.0 % → (2005) 9.2% → (2006) 8.0% (전망)
- 1999년 이래 2000년까지 4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21.5%) 기록
- 2002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급성장세로 반전
- 2006년에는 잠재 성장률 도달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6년 상반기 8.0% 성장 기록으로 증가세 둔화)

나. 물가상승률: 물가 불안 조짐으로 2006년 최대 주요 경제현안으로 부상

- (2003) 3.7% ⇒ (2004) 6.1% ⇒ (2005) 12.3% ⇒ (2006) 13.2% (전망)
- ★ 2006. 1~7월 연간 기준 10.6%
- 환율 하향 안정세 지속으로 가격상승 압력요인 감소 및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정책 의지로 2003 ~ 2004년도 물가안정을 이룸
- 2005년 소비자 물가인상률 12.3% 기록, 올해에도 물가 불안 확대 추세
 - 미화 환율 하락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과다 개입으로 2004. 12월부터 시중 화폐 유통량의 급격 확대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 키르츠네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생산, 유통업체와 소비자 가격을 일정 기간 동결 하는 ‘물가 안정화 협약’ 을 통해 물가를 억제하고 있음
- 한편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민영화된 외국계 공공 서비스 기업간 장기간에 걸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 물가 급등의 불안 요소가 잠복되어 있음.

다. 실업률

- (2003) 16.3% ⇒ (2004) 13.2% ⇒ (2005) 10.2% ⇒ (2006) 9.5% (전망)
- 실업률은 9%대의 경제성장 영향으로 2004년 13.2%, 2005년 10.2%로 최근 16년 이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 국가로부터 생계비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업 가장들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이를 모두 포함하면 실업률은 3% 포인트 이상 상승
- 금년 실업률은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취임 전 약속한대로 한자리대로 하락 예상되나 경제활동인구의 46.1%에 달하는 비 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임

라. 환율

- 아르헨 정부의 ‘고환율 정책’ 경제정책으로 폐소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 안정세(3.0 페소) 유지

- 지난해 IMF가 시장 적정환율로 권고한 2.2 ~ 2.4 페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로서는 수출확대 및 수출세 확대 징수 등의 효과와 수입억제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올해 1월 3일 IMF 채무 조기상환(95억 3000만 달러)에 사용한 외환 보유고 회복을 위해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예정에 있어 올해 대미 환율은 3.03~3.12 페소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마. 경상수지

- 2005년 경상수지 흑자폭 회복 추세
 - (2002) US\$86.7억 → (2003) US\$76.6억 → (2004) US\$32.8억 → (2005) US\$ 54.1억 → (2006. 1분기) US\$ 11.8억
 -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 개선

(단위: US\$백만)

구 분	2004년	2005년	
		금액	증감액
경상수지	3,278	5,407	2,129
무역수지	13,239	12,714	-525
서비스수지	-1,666	-1,666	-
자본수지	-8,922	-6,312	2,610
이전수지	627	671	44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최신 자료

9.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

- 아르헨티나의 각 산업별 GDP 비중은 2005 년 기준 제조업 16.6%, 농·목축 및 임업 5.6%, 건축 5.8%, 광업 1.7%, 수산업 0.1% 등의 순이다.

산업 분야별 비중 및 동향

구 분	GDP 비중(%)		GDP 증감율(%)	
	2004 년	2005 년	2004 년	2005 년
농목축 및 임업	5.5	5.6	-1.0	11.9
수산업	0.1	0.1	-19.1	-15.5
광업	1.8	1.7	-0.4	-0.7
제조업	16.8	16.6	12.0	7.7
전기, 가스, 상수도	2.9	2.8	6.5	5.0
건축	5.2	5.8	29.4	20.4
도소매업	12.6	12.6	13.6	9.9
호텔 및 요식업	2.5	2.5	7.0	7.9

수송, 물류, 통신	9.1	9.6	13.4	14.8
금융 중계업	3.6	3.9	-5.5	17.4
부동산	14.5	13.8	4.3	4.4
국방, 공공서비스	5.2	4.9	1.8	3.3
교육, 보건	8.5	8.1	2.9	4.2
기타	5.7	5.7	9.1	9.8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2006.8월 기준 자료

나. 산업 분야별 동향

○ 제조업

- 제조업 산업동향 지수 면에서 2006 년 5 월 115.5 를 기록, 2001 년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5
산업동향지수(EMI)	87.5	79.4	91.4	101.3	109.0	115.5

주: 1997=100 기준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2006. 8월 기준 최신자료

- 주요 업종별 구성은 식음료 24.4%, 화학 16.7%, 금속산업 16.3%, 자동차 7.9%, 인쇄 6.75, 기초금속 5.7%, 석유 5.5%, 비금속 광물 4.7%, 고무 플라스틱 4.5%, 직물 3.6%, 제지 2.6%, 담배 1.4% 순이다.
-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는 아래 분야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업종으로 분류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 건축자재, 제지, 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 특수강, 피혁제품, 패션의류, 화학, 식품 가공, 포도주 및 주류

○ 농업

- 아르헨티나는 국토면적이 세계 8 위로 1990 년 ~ 2005 년 기간 중 경작면적은 52%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 105% 증가하였다.
- 주요 곡물은 대두, 밀, 해바라기, 옥수수 등이다.

주요 농축산물 현황

구 분	세계 순위	구 분	세계 순위
해바라기 기름	생산 1 위 / 수출 1 위	대두	생산 3 위
콩기름(대두유)	생산 1 위 / 수출 1 위	레몬	생산 3 위 / 수출 2 위
꿀	생산 1 위 / 수출 1 위	쇠고기	생산 3 위
말고기	수출 1 위	포도주	생산 6 위

자료원 : 아르헨티나 투자개발공사 Invest Guide

○ 수산업

- 대서양 해변(4,725 km)를 따라 연근해 어업 발달 하였고, 연간 어획량은 100 만 톤 내외로 주요 어종은 대구류(merluza), 새우, 오징어 등이다.
- 아르헨티나인의 수산물 소비 기피(연간 6kg)로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 임업
 - 아르헨티나 내 2,000 만 헥타르 조림 가능지 중 현재 5%만 조림되어 있는 상태이다.
 - 수종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투자가능성 높다.
 - 유칼립투스 : 헥타 당 연간 41 m³ (칠레 35 m³)
 - 소나무 : 헥타 당 연간 32 m³ (캐나다의 3 배, 미국의 2 배)
- 원유 및 가스
 - 가스 생산 세계 10 위, 원유 수출 세계 18 위로 가스 생산은 2003 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 1990 년의 2 배 이나, 원유 생산은 하락 추세에 있다.
- 광업
 - 아르헨티나 광업자원은 세계 6 위로 투자 기회 면에서는 2 위로 평가되고 있다. 광산 채굴 가능지 75 만 km² 중 75%가 미개발 상태에 있다.
 - 주요 광물은 금, 은, 동, 납, 아연, 벤토나이트(bentonite), 점토(clay), 보석광 등이다.
 - 아르헨티나 광업 실효 세율은 41%로 중남미 주요 광산국가보다 6% 포인트 낮고 캐나다 및 호주보다 20%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거시경제 통계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www.indec.gov.ar
 - GDP, 물가, 실업률, 무역통계 등 각종 통계 제공
- 아르헨티나 경제부 : www.mecon.gov.ar
 - 관보 및 각종 경제정보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 www.bcra.gov.ar
 - 금융정보/통계, 경제현황 및 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

나. 정부기관

- 아르헨티나 투자진흥공사(Invertir) : www.invertir.com
 - 아르헨티나 투자현황 및 비즈니스 정보
- 아르헨티나 수출진흥기관(Export-Ar) : www.export-ar.org.ar
 - 해외수입업체정보, 수출통계, 세계입찰정보 등
- 아르헨티나 생산연구소(CEP) : www.industria.gov.ar/cep/html/inversion.htm
 - 내외국인 투자통계, 아르헨티나 산업 현황 분석 자료 등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 www.mecon.gov.ar/cnce/index.htm
 - 아르헨티나 반덤핑 규제 현황 등

- 아르헨티나 국세청 : www.afip.gov.ar
- 서비스안내, 수입/수출업자검색, 수입자 등록수속 등

다. 상품정보

-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 협회 : www.adefa.com.ar
- 자동차 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 등
- 플라스틱산업 협회 : www.caip.org.ar
- 산업현황, 생산업체디렉토리, 기술안내 등
- 기계공구 협회 : www.carmahe.com
-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협회 : www.cessi.org.ar
-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이트
- 의약품생산 협회 : www.safybi.org.ar
- 의약품 생산현황, 시장동향
- 의류산업 협회 : www.ciaindumentaria.com.ar

라. 경제 월간지

- Mercado : www.mercado.com.ar
- 경제동향 및 시장동향 분석
- Apertura : www.apertura.com
- 마케팅중심 및 시장동향분석 월간지

마. 전시회 정보

- Ferias y Congresos : www.feriasycongresos.com.ar
- 전시회, 각종 포럼 캘린더

바. 자원 정보

- 아르헨티나 광업청 (www.mineria.gov.ar/nnhome.asp)
-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energia3.mecon.gov.ar/home/)
- 아르헨티나 에너지 연감 2004년
 - energia3.mecon.gov.ar/contenidos/archivos/Anuario%20de%20Reservas%202004.pdf
- 아르헨티나 에너지 연감 2003년
 - energia3.mecon.gov.ar/contenidos/archivos/publicaciones/Reservas2003.pdf

- 아르헨티나 석유가스협회 (IAPG: Instituto Argentino del Petroleo y del Gas)
 - www.iapg.org.ar
- 아르헨티나 광물 전문지 Panorama Minero
 - www.panoramaminero.com.ar/home.htm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구 분	단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GDP	US\$억	1,263.6	1,512.4	1,808.1	1,898.8(전망)
경제성장률	%	8.8	9.0	9.2	8.6(1분기)
1인당 GDP	US\$	3,380	3,980	4,991	4,715(1분기)
민간소비	%	7.0	8.3	8.5	8.7(1분기)
투자	%	38.2	34.4	22.7	22.8(1분기)
수출	US\$억	299.4	345.5	400.1	253.4(7월)
수입	US\$억	138.5	224.5	286.9	127.5(7월)
경상수지	US\$억	76.6	32.8	54.1	11.8(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	3.7	6.1	12.3	10.6(7월)
도매물가 상승률	%	2.0	7.9	10.6	11.4(7월)
임금상승률(민간)	%	15.8	11.0	26.0	21.2(6월)
실업률	%	14.5	12.1	10.1	11.4(1분기)
외환보유고	US\$억	141.2	196.5	280.1	262.2(7월)
외채(GDP 대비)	%	128.6	112.5	64.3	52.1(1분기)
대미 환율	Peso/US\$	2.95	2.94	2.92	3.08(7월)
재정흑자(GDP 대비)	%	0.5	2.6	1.8	1.8(6월)
화폐량(M2)	%	36.4	33.4	24.7	21.8(7월)
콜금리	%	1.7	2.1	6.7	7.7(7월)
주가지수(Merval)		1,020	1,280	1,531	1,678(7월)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2006. 8월 자료 종합

12. 무역통계

가. 한-아르헨티나 무역통계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연도별 수출현황

(단위: US\$천, %)

연도	금액	증가율	2006년 월별	금액	증가율
1995	305,232	-36.1	1	25,743	52.7
1996	443,082	45.2	2	53,556	72.5
1997	630,264	42.3	3	84,432	64.4
1998	584,349	-7.3	4	109,413	58
1999	439,428	-24.8	5	137,535	55.4
2000	447,517	1.8	6	168,802	44.5
2001	302,101	-32.5	7	190,708	27.4
2002	51,471	-83	8	-	-
2003	161,439	213.7	9	-	-
2004	239,144	48.1	10	-	-
2005	309,008	29.2	11	-	-
2006. 1~7	190,708	27.4	12	-	-

주 : 2006년 월별 수출은 누계임

자료원 : KOTIS 무역통계, 2006.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 US\$천, %)

연도	금액	증가율	2006년 월별	금액	증가율
1995	132,365	93.9	1	54,387	22.7
1996	224,343	69.5	2	107,853	43.8
1997	252,844	12.7	3	128,107	26
1998	126,175	-50.1	4	187,159	39.9
1999	163,381	29.5	5	209,066	27.9
2000	191,314	17.1	6	267,783	40.3
2001	373,871	95.4	7	307,623	31.6
2002	376,419	0.7	8	-	-
2003	435,670	15.7	9	-	-
2004	421,499	-3.2	10	-	-
2005	371,755	-11.8	11	-	-
2006. 1~7	307,623	31.6	12	-	-

주 : 2006년 월별 수입은 누계임

자료원 : KOTIS 무역통계, 2006.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천,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5 년 금액	증가율	06. 1~4 월 금액	증가율
		총계	309,008	29.2	190,708	27.4
1	821	영상기기	52,580	65.7	37,653	65.7
2	214	합성수지	55,438	95.9	24,866	9.8
3	741	자동차	18,189	86.8	18,427	126.1
4	832	전자관	13,475	133.8	10,700	61.5
5	813	컴퓨터	8,348	37.8	9,711	132.3
6	320	고무제품	15,931	29	8,465	-20.4
7	422	인조섬유장섬유사	10,589	-2.9	7,029	24.5
8	812	무선통신기기	10,450	-45.5	6,120	-5.6
9	723	금속공작기계	6,917	64.9	5,133	29.6
10	725	건설광산기계	7,944	60.9	5,044	13.5
11	228	정밀화학원료	4,940	57.1	4,473	71.5
12	825	난방 및 전열기기	10,430	26.2	3,924	-39
13	721	섬유 및 화학기계	6,471	54.6	3,491	-6.7
14	614	철강관 및 철강선	4,687	210.2	3,189	55.4
15	824	가정용회전기	7,271	-29.4	2,922	24.4
16	436	편직물	5,231	24.4	2,885	2
17	434	인조장섬유직물	6,898	-39.1	2,844	-32.4
18	742	자동차부품	3,435	40.6	2,262	22.5
19	439	기타직물	5,237	46.4	1,814	-44.3
20	411	인조섬유	1,562	36.7	1,788	71.9

자료원 : KOTIS 무역통계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천,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4 년 금액	증가율	06. 1~4 월 금액	증가율
		총계	371,755	-11.8	307,623	31.6
1	013	식물성물질	252,355	26.1	135,995	-12.3
2	113	동광	24,588	-74	106,200	331.9
3	015	기호식품	4,627	24.9	11,437	331.3
4	331	가죽	10,112	22.1	9,626	79.6
5	024	축산가공품	8,411	156.4	9,178	139.3
6	041	어류	10,573	59.7	8,619	34.6
7	621	알루미늄	19,111	22.7	6,548	-45.5
8	614	철강관 및 철강선	18,846	11.6	4,079	-69.9
9	043	연체동물	1,151	232.1	3,160	466.8
10	252	종이제품	813	24.6	1,930	587.4
11	214	합성수지	1,390	21.2	1,563	1,316.20
12	226	농약 및 의약품	664	-9.1	1,395	695.2

13	439	기타직물	1,209	132.4	721	-13.9
14	229	기타정밀화학제품	1,405	6	652	-24.1
15	228	정밀화학원료	1,904	84	641	-30.8
16	290	기타화학공업제품	1,460	47.2	608	-24.4
17	733	의료용기기	481	54.4	589	106.7
18	019	기타농산물	897	656.8	541	27.7
19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1,646	216.8	431	-18
20	320	고무제품	0	-	352	-

자료원 : KOTIS 무역통계

나. 아르헨티나 무역통계

최근 연도 아르헨티나 무역동향

(단위 : US\$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5월
수 출 (증감)	26,543 (0.8)	25,651 (-3.4)	29,349 (16.7)	34,550 (15.4)	40,013 (16.0)	17,724 (13.3)
수 입 (증감)	20,320 (-19.6)	8,990 (-55.8)	13,851 (51.1)	22,445 (62.1)	28,692 (28.0)	12,746 (17.8)
수 지	6,223	16,661	15,498	12,105	11,321	4,978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2006. 5월 기준

국 별 수출통계

(단위 : US\$백만)

국 가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1~5월
미주	14,069	14,689	18,032	21,099	9,299
- 브라질	4,846	4,619	5,587	6,326	2,851
- 칠레	2,975	3,421	3,839	4,500	1,848
- 미국	2,884	3,051	3,733	4,470	1,703
- 파라과이	343	423	520	504	222
- 우루과이	529	528	663	817	477
유럽	5,562	6,525	6,947	8,004	3,839
- 스페인	1,139	1,389	1,346	1,559	687
- 프랑스	314	325	295	384	248
- 이탈리아	851	933	949	987	448
- 네덜란드	1,043	1,095	1,244	1,351	615
- 영국	384	387	405	374	166
- 독일	607	723	726	823	432
아시아	4,435	6,138	6,446	7,719	3,315
- 중국	1,099	2,453	2,628	3,158	1,239
- 일본	371	343	360	285	164
- 한국	330	439	318	350	184
아프리카	1,281	1,559	2,573	2,475	964
대양주	107	131	138	163	45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무역통계

국별 수입통계

(단위: US\$백만)

국 가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1~5월
미주	5,212	8,200	13,344	17,142	7,402
- 브라질	2,517	4,701	7,567	10,186	4,466
- 칠레	177	290	404	549	239
- 미국	1,788	2,232	3,389	3,999	1,606
- 파라과이	255	294	380	451	196
- 우루과이	122	163	227	269	119
유럽	2,485	3,354	5,155	5,971	2,685
- 스페인	311	390	517	571	248
- 프랑스	262	319	585	583	286
- 이탈리아	311	440	623	748	360
- 네덜란드	74	106	172	182	76
- 영국	156	215	312	319	149
- 독일	554	767	1,093	1,303	571
아시아	1,072	1,978	3,300	4,932	2,270
- 중국	330	720	1,402	2,240	2,237
- 일본	314	395	612	789	789
- 한국	69	212	308	415	412
아프리카	88	122	181	168	98
대양주	56	70	85	150	76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무역통계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US\$백만)

품 목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5월
1차산품	6,049	5,289	6,465	6,828	7,916	3,638(1.6)
가공농축수산물	7,463	8,168	9,993	11,932	13,173	5,737(17.7)
공산품	8,307	7,635	7,698	9,522	11,935	5,377(17.4)
연료 및 에너지	4,938	4,791	4,618	6,195	6,991	2,973(14.0)

자료원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무역통계

품목(분야)별 수입통계

(단위: US\$백만, %)

구 분	2004 년	2005 년	증감	2006 1~5 월	증감
계	22,445	28,692	28	12,746	17.8
자본재	5,331	7,092	33	3,040	31.2
중간재	8,632	10,376	20	4,532	7.3
연료	1,003	1,543	54	588	-6.4
자본재 부품	3,622	4,782	32	2,199	16.2
소비재	2,501	3,164	27	1,509	30.7
자동차	1,197	1,603	34	827	50.5
기 타	158	131	-17	51	-10.6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무역통계

아르헨티나 수출 상위 20개 품목

연번	품목코드	품목	2005 년 수출액 (FOB US\$)	2006 년 1~4 월 수출액(US\$)	비중(%)
1	15071000	대두유	112,912,107	24,231,922	33.03
2	23040010	밀가루	74,437,717	18,421,097	25.11
3	03037990	생선 (냉동된 것)	12,918,960	7,976,788	10.87
4	41044920	소 가죽	8,161,734	5,209,760	7.10
5	76012000	알루미늄	34,013,410	4,699,267	6.41
6	04061010	모짜렐라 치즈	5,958,693	3,194,358	4.35
7	39081024	폴리아미드	371,763	1,176,391	1.60
8	73045990	파이프	658,986	1,153,199	1.57
9	48025799	재지	392,975	1,081,305	1.47
10	03079900	조개류	2,105,938	1,014,096	1.38
11	51052910	면 (Wool)	1,114,762	622,097	0.85
12	90213980	인조 눈, 심장	426,867	411,440	0.56
13	04069020	치즈	3,964,785	353,016	0.48
14	29349933	기타 핵산 및 염	758,400	284,400	0.39
15	29310039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830,827	232,613	0.32
16	22042100	와인	958,967	223,377	0.30
17	32011000	케브라췌 엑스	796,445	202,619	0.28
18	56039400	원단	155,960	180,992	0.25
19	15121919	해바라기유 (기름)	806,726	158,433	0.22
20	56039390	폴리에틸렌 원단	747,938	153,088	0.21

자료원 : Mercosur On-line 무역통계

아르헨티나 수입 상위 20개 품목

연번	품목코드	품목	2005 년 수입액 (FOB US\$)	2006 년 1~4 월 수입액	비중(%)
1	39076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6,415,733	16,324,911	16.67
2	85401100	CRT TV 브라운관	24,322,916	14,612,626	14.92
3	85299020	라디오, 텔레비전 송수신기	4,459,740	4,191,058	4.28
4	58012200	골덴 직물	1,901,037	2,589,406	2.64
5	85281290	기타 컬러 TV	2,326,514	1,936,030	1.98
6	85282190	기타 컬러 영상 모니터	5,891,477	1,736,480	1.77
7	40112090	기타 공기 타이어	5,939,188	1,631,268	1.67
8	84581199	기타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Lathes)	2,698,276	1,557,592	1.59
9	54076100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사	6,877,100	1,507,842	1.54
10	54022000	폴리에스터 강력사	3,058,301	1,483,435	1.51
11	8471701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6,461,707	1,418,621	1.45
12	85422929	PCB	2,386,758	1,409,817	1.44

13	84151011	스플릿형 에어컨	5,002,876	1,310,426	1.34
14	54024300	폴리에스터사	2,418,357	1,170,907	1.20
15	85043199	변압기	2,226,167	1,152,586	1.18
16	40111000	승용차용 고무 타이어	3,454,493	1,058,709	1.08
17	84295219	엑스카베이터	1,506,828	974	0.99
18	84272090	포크 리프트	1,924,739	853	0.87
19	29091990	에틸	0	811	0.83
20	54075210	염색한 합성필라멘트 직물	2,547,770	796	0.81

자료원 : Mercosur On-line 무역통계

13. 투자통계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연도별 투자현황

연도	신고건수 (건)	신고금액 (US\$천)	투자건수 (건)	투자금액 (US\$천)
2000	2	9,425	2	2,066
2001	1	4,310	1	3,255
2002	0	0	0	6,655
2003	0	13,70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6 월)	0	44,200	0	1,136
계	48	385,139	41	143,738

자료원 : 한국 수출입 은행 국 별 해외투자현황 (www.koreaexim.go.kr/kr/index.jsp)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현황 (2006. 6 월 누적 액 기준)

(단위: 건, US\$천)

구 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합계
신고건수	27	4	11	1	4	1	48
신고금액	54,943	156,250	92,026	3,900	77,000	1,010	385,139
투자건수	21	4	10	1	4	1	41
투자금액	29,434	40,088	11,030	1,806	61,125	255	143,73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국 별 해외투자현황 2006. 9 월 자료

○ 아르헨티나의 대 한국 투자 : 없음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US\$백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6,909	16,142	2,491	3,434	8,873	10,208
- M&A	14,566	5,290	1,722	1,115	2,131	3,888
- 자본형성	12,343	10,852	769	2,319	6,742	6,32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생산연구원(CEP) 외국인 투자동향 최신 자료(2006. 9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국가별 외국인 투자현황(2005년 기준)

국가 명	광업 에너지	사회간접 자본	제조업	유통· 서비스	1 차 산업	금융	계	비중
스페인	932.2	1,067.0	257.2	133.6	1.3	3.5	2,394.9	37.9
미국	381.0	407.1	279.0	123.4	5.0	10.5	1,206.0	19.1
프랑스	361.3	47.6	221.7	36.2		0.7	667.4	10.6
브라질	307.2	8.9	123.6	0.5			440.2	7.0
멕시코		288.5		12.7			301.2	4.8
캐나다	239.8	2.0	20.1	1.0			269.2	4.2
칠레		70.0	38.2	59.3			167.5	2.6
이탈리아		92.1	55.1	6.4	0.6		154.2	2.4
독일	51.6	5.0	87.5	0.8			144.8	2.3
중국	8.0	12.5	4.9	80.8			106.3	1.7
영국	29.6	0.9	55.7			3.5	89.6	1.4
네덜란드		6.5	16.2	62.8			85.5	1.4
일본	0.7		57.0	13.3			71.0	1.1
스위스	12.8		39.8	3.0			55.5	0.9
호주	31.7	12.0					43.7	0.7
우루과이			13.2	16.6			29.9	0.5
벨기에		4.5	20.0	1.5			26.0	0.4
스웨덴			15.0				15.0	0.2
룩셈부르크		7.5					7.5	0.1
말레이시아				4.0			4.0	0.1
베네수엘라		3.3					3.3	0.1
오스트리아			2.5				2.5	-
한국			1.5				1.5	-
푸에르토리코				1.4			1.4	-
덴마크			1.2				1.2	-
아일랜드		1.0					1.0	-
포르투갈			0.8				0.8	-
안도라				0.7			0.7	-
기타		25.0	10.4				35.4	-
계	2,355.8	2,061.2	1,320.5	557.9	7.0	18.2	6,320.5	10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생산연구원(CEP) 외국인 투자동향 최신 자료(2006. 9월 기준)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 국토가 광활하여 지역별로 열대·온대·한대의 다양한 기후 분포를 보이고 있다.
 - 북부 및 동북부 지역 : 열대 기후로 고온 다습 (우기 : 10 월 ~ 3 월)
 - 안데스 산맥 지역 : 산맥의 고도에 따라 아열대성에서 한대 기후 분포
 - 중부 해안 지역 : 온대로 여름에 고온 다습
(여름인 1월 평균기온 25 ℃이고, 겨울에는 0 ℃ 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음)
 - 중부 팜파스 지역 : 해안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으며 여름은 최고 38℃까지 상승
 -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 : 바람이 많고 건조하나 온대 기후
 - 남부 티에라 델 푸에고 섬 : 남극에 가까워 한대 기후를 보이며, 비와 눈이 자주 내림
(평균기온 : 여름 8 ~ 10 ℃ / 겨울 0 ~ 2 ℃)
-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있어 북반구에 있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로 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이다.
 -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있으나, 봄과 가을은 짧은 편임. 여름은 습하고 더우며 평균 25 ℃ 정도이고, 겨울은 지역에 따라 다름
 -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은 겨울에 영상 기온으로 얼음이 얼지 않으나 습도가 평균 70%를 넘어 한국의 초겨울 날씨와 비슷함. 바릴로체(Bariloche)와 멘도사(Mendoza) 지역은 겨울에 눈이 내리며, 스키로 매우 유명한 곳임
 - 광활한 국토로 지역별 강우량이 상이하며,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적어짐. 전국의 연 평균 강우량은 약 919 mm 이며, 연평균 1,400 mm 이상의 지역에서 200 mm 이하의 사막까지 다양함. 우기는 11 ~ 3 월까지이며, 건기는 4 ~ 10 월까지임
- 부에노스아이레스(연방수도) 및 수도권 기후
 - 연 평균 기온이 18 ℃로 전형적인 온대 기후이며, 여름(최고 29 ℃)은 무더우나 겨울(최저 약 5℃)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음
 - 라 플라타(La Plata) 강에 인접하고 있어 습도가 매우 높으나, 내륙으로 갈수록 건조해짐. 연 평균 강우량은 1,542.7 mm 임

주요 도시 별 평균 기온 및 강우량

(단위 : ℃, 밀리미터)

도시명	평균기온 /강우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uenos Aires	18.0	25.4	23.5	22.5	17.6	15.3	12.9	11.1	12.0	14.5	19.0	20.4	21.8
	1,542.7	183.1	403.3	87.7	75.5	67.5	54.4	82.2	28.2	107.0	65.0	230.0	158.8
Cordoba	18.0	24.1	23.0	21.2	17.1	14.8	13.1	10.4	12.2	16.1	20.1	22.4	21.3
	926.9	139.0	193.6	140.8	89.1	12.4	15.0	17.1	0	5.0	75.3	95.9	143.7
Mendoza	18.3	27.2	24.9	22.7	16.8	13.3	11.4	8.5	10.2	16.1	21.3	23.4	24.0
	104.5	8.0	14.3	41.8	27.2	3.2	2.0	0	0	0	0	8.0	0
Posadas	22.4	27.7	26.7	25.3	22.4	19.2	20.7	17.2	16.6	20.7	23.9	23.8	24.4
	1,812.4	262.3	239.5	150.0	134.0	0.5	30.2	22.0	73.3	62.3	270.0	239.2	329.1

Trelew	13.7	20.4	19.9	18.2	12.7	9.9	7.8	6.6	8.6	11.2	14.4	16.9	17.5
	194.7	-	33.2	21.8	3.0	62.3	25.8	1.2	11.3	10.6	12.5	6.0	7.0
Ushuaia	6.0	8.9	9.9	8.0	6.8	5.5	1.0	3.7	3.8	4.7	5.6	6.2	8.2
(남부)	571.7	63.6	10.1	44.7	82.9	40.7	77.4	49.1	44.2	22.2	26.2	46.7	63.9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

2. 시차/근무시간

가. 시 차

-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시차는 12시간으로 한국이 12시간 빠르다.
 - 한국이 오후 21시일 때 아르헨티나는 오전 9시
- 서머타임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 1996년까지 10월 21일부터 다음 해 3월 3일까지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1997년부터 폐지하였다.
- 아르헨티나 전국이 동일 시간대이고, 브라질 및 우루과이(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의 주요 도시와 동일 시간대에 속해 있다.

나. 근무시간

- 일반적으로 9:00 ~ 18:00이며, 점심시간은 13:00 ~ 14:00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주요 기관별 근무시간

구 분		근무일	근무시간
관공서	일반 관공서	월 ~ 금요일	9:00 ~ 18:00
	세관	월 ~ 금요일	10:00 ~ 17:00
	세무서	월 ~ 금요일	8:00 ~ 16:00
	운전 면허소	월 ~ 금요일	7:30 ~ 13:00
은행, 환전소		월 ~ 금요일	10:00 ~ 15:00
상점		월 ~ 토요일	9:00 ~ 20:00
회사		월 ~ 금요일	9:00 ~ 18:00
쇼핑센터		월 ~ 일요일	10:00 ~ 22:00

3. 도량형

- 제반 도량형에 있어서 ‘미터법’을 사용한다.
 - 길이는 미터(m), 질량은 그램(g), 시간은 초(s), 온도는 섭씨를 기본단위로 함
 - 토지 넓이는 헥타(ha)가 많이 쓰이며 1 헥타는 10,000 m², 3,000 평임

길 이

단위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
1 cm	-	0.0109	0.0328	0.3937	0.01	1
1 m	0.0006	1.0936	3.2808	39.37	1	100
1 인치	-	0.0278	0.0833	1	0.0254	2.54
1 피트	0.00019	0.3333	1	12	0.3048	30.48
1 야드	0.0006	1	3	36	0.9144	91.438
1 마일	1	1760	5280	63360	1609.3	160930

무 게

단위	파운드(lb)	온스(oz)	톤(ton)	킬로그램(kg)	그램(g)
1 g	0.0022	0.03527	0.000001	0.001	1
1 kg	2.20459	35.273	0.001	1	1000
1 톤	2204559	35273	1	1000	1000000
1 그레인	0.00014	0.00228	...	0.00006	0.06479
1 온스	0.0625	1	0.000028	0.02835	28.3495
1 파운드	1	16	0.00045	0.45359	453.592
1 돈	0.00827	0.1223	0.000004	0.00375	3.75
1 근	1.32279	21.1647	0.0006	0.6	600
1 관	8.2672	132.28	0.00375	3.75	3750

넓 이

단위	평	평방자	에이커(acre)	제곱야드(yd ²)	제곱피트(ft ²)	아르(a)	제곱미터(m ²)
1 제곱미터	0.3025	10.89	0.00024	1.1958	10.764	0.01	1
1 아르	30.25	1089	0.02471	119.58	1076.4	1	100
1 제곱피트	0.0281	1.0117	0.000022	0.1111	1	0.000929	0.092903
1 제곱야드	0.25293	9.1055	0.000207	1	9	0.00836	0.83613
1 에이커	1224.2	44071.2	1	4840	43560	40.468	4046.8
1 평방자	0.02778	1	-	0.10982	0.98841	0.00091	0.09182
1 평	1	36	0.00081	3.9537	35.583	0.03305	3.3058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종류

1) 관광·상용비자 : 90 일까지 비자 면제(No-Visa)

- 2003.11.28 부터 아르헨티나 내무부 령 제 362 호(2003.11.26)에 따라 관광·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교관·관용·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90 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2) 거주비자

- 상사 주재원 등이 발급 받는 거주비자의 경우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소재 기업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거주비자의 체류 허가기간은 1 년이고, 1 년 이후에는 매년 아르헨티나 이민청으로부터 DNI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신분증명서)의 갱신 허가를 득함으로 연장이 가능함. 최초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 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함
- 비자 발급처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천우 빌딩 5 층 534, 전화 : 02-797-0636)

나. 출입국 절차

1) 입국절차

- 입국심사를 실시하나 특별한 규제는 없음
- 입국심사 후 신호등 시스템을 거쳐 세관검사 여부가 결정되는데, 파란 불이 켜지면 세관검사가 일반적으로 면제되나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미화 10,000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T/C 등을 소지하여 출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10,000 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

2) 출국절차

- 미국 항공사의 경우 검색이 까다로움으로 공항에 3 시간 이전에 도착해야 함
- 공항세 납부: 출국할 때 공항세로 U\$ 18 을 납부해야 함. 항공권 티켓에 일반적으로 공항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출국 시에도 출국심사를 실시함

다. 면세품 보유한도

1) 여행객 면세 통관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인당 면세통관 가능 품목 및 수량
 - 항공 및 해상 입국 여행객
 - 술 2 병, 향수 2 병, 연초 2 상자, 여승연 50 개, 식품 5 kg 등으로 U\$ 300 한도 내에서 면세 가능(15 세 이하 경우 U\$150),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도 U\$ 300 한도 내에서 면세 가능(15 세 이하 경우 U\$150)
 - 육로 입국 여행객 : US\$ 150 한도 내에서 면세 가능
- 가족(3 인 가족 기준)당 면세통관 기준 : 미\$ 800
- 면세통관 기준 초과분 : 50%의 세금 부과
- 여행객의 면세 혜택 기간 : 1 개월에 1 회
- 16 세 이하의 여행객은 상기 혜택의 50%까지 허용
- 다음 품목은 1 인당 1 개씩 구입가의 50%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가능함
 - TV, AUDIO, VIDEO, 촬영기기, 컴퓨터, 전화기, 악기, 시계, 의료기기, 전기 기기 등
 - 휴대전화기기: 입국 시 관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 양식에 기재, 제출하여야 함

- 구입가 판정: 세관이 고시한 가격표에 의함. 구입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2) 필수 신고사항

- 면세대상 제외 품목
- 휴대폰
- 미화 10,000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여타 통화 수단

라. 방역

- 특정 지역에서의 출입국자 또는 특정 전염병 및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카드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마. 공항 <-> 시내교통편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공항에서 시내까지 35km 로 출국장을 나오면 REMIS 또는 RADIO TAXI 라고 쓰인 스탠드에서 행선지를 말하고 해당금액을 지불한 후 택시티켓을 받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택시에 탑승하면 됨
-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요금은 20~25 달러 내외임

5. 환율/환전

가. 통화단위 : 페소(Peso : \$), 센타보(Centavo)

- 1 페소 = 100 센타보
- 지폐는 2, 5, 10, 20, 50, 100 페소가 있고, 동전은 1, 5, 10, 25, 50 센타보와 1 페소가 있다.
- 1992. 1. 1 부터 화폐 개혁을 실시하여 화폐 단위를 ‘아우스트랄(Austral)’에서 ‘페소(Peso)’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나. 환 율 : US\$ 1 = 3.07 페소 (2006. 8. 22 매도율 기준)

- 2002. 1. 7 태환제(US\$ 1 = 1 페소) 폐지에 따라 ‘공정환율’ (US\$ 1 = 1.4 페소) 및 ‘시장환율’의 이중 환율제 실시 (페소화 평가절하)
- 2002. 2. 4 공정 환율제 폐지, 2. 11 부터 단일 자유변동 시장환율제 실시

다. 환 전

- 은행·공항·환전소에서 신분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이 가능하다.
- 택시요금 등 소액의 경우 달러 사용이 어려움으로 환전이 필요하고, 플로리다 거리 등 관광객이 자주 찾는 쇼핑거리나 상점에서는 달러화 지불도 가능하다.

라. 신용카드

- 현지식당, 쇼핑센터, 호텔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 한국식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 페소 또는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6. 물가정보

□ 도시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환율 : US\$1 = Peso2.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344.83	7.1	구두(1켤레, 소가죽)	103.45
1.2	넥타이(1개, 실크100%)	37.6	7.2	치약(150g, 1개)	1.71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62.07	7.3	칫솔(1개)	1.57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2.07	7.4	면도기(1세트)	6.9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9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2.76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8.62	7.6	화장지(1통, 300매)	1.03
1.7	청바지(Levi's)	100	7.7	비누(1개)	0.86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7.59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07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5.17	8.2	볼펜(12개)	0.7
2.3	닭고기(1KG, 생닭)	2.76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7
2.4	쌀(1KG, Short Grain)	1.38	8.4	공CD(1통, 12개입, 700MB)	0.62
2.5	밀가루(1KG)	0.52	8.5	휴대폰(범용형)	90
2.6	설탕(1KG, 백설탕)	0.52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34.48
2.7	계란(10개)	1.38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17.24
2.8	감자(1KG, 현지산)	0.52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50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3,300
3.1	고추장(1Kg)	5.17	9.2	엔진오일(1L)	13.75
3.2	된장(1Kg)	3.45	9.3	휘발유(1L)	0.69
3.3	라면(1개)	1.03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034.48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5.17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477.24
3.5	불고기(1인분, 200g)	5.17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5.17	10.1	지하철(1구간)	0.24
3.7	김치찌개(1인분)	5.17	10.2	시내버스(1구간)	0.28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68
4.1	햄버거(1개)	3	10.4	택시(추가요금/Km)	0.08
4.2	피자(1판)	6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69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62.41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38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4.57

4.5	담배(수입산, 1갑)	1.21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9
4.6	위스키(1병, 750ml)	55.17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07
4.7	커피(1병, 175g)	2.76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2.8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1통, 2~3페이지)	0.26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1,1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38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0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62.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2년치의5%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3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11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5
6.1	TV(29인치, 칼라, 범용)	862.07			
6.2	VTR(6헤드, 범용)	182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55.17			
6.4	전자레인지	137.93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827.59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827.59			

□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환율 : US\$1 = Peso2.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75.86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1,43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6,000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 연간)	24%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2,2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4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2,6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6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4,300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20.69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4~5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642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 시간
13.3	골프공(1타)	34.48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20	19.1	법정최저자금	4,311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4.14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2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4.74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35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9~35%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2,068.97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0~1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3.79			
14.3	병원진료비	3.45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4.4	치과(스켈링, 1회)	20.69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52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19.89		
15.2	한국신문(1개월)	13.79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5.52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5.17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4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00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68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32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6.9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5.17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6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400		

7.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 항공편

- 한국과 아르헨티나간 직항은 없으며 3 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미주 노선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외 유럽, 대양주, 남아공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항공 노선	특 징
[미국 / 캐나다 경유] 서울-LA-상파울루(산티아고)-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뉴욕(아틀란타)-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토론토-상파울루-부에노스아이레스	가장 일반적인 노선 LA 직항편 없음
[유럽 경유] 서울-파리/로마-부에노스아이레스	
[뉴질랜드 경유] 서울-오클랜드(뉴질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간상 가장 빠른 노선이나 수하물 무료 한도가 1인당 1개 25 kg로 작음
[남아공 경유] 서울-쿠알라룸푸르-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 부에노스아이레스	말레이시아 항공 취항

나. 공 항

- 에세이사(Ezeiza) 국제공항 : 시내 중심가에서 35 km 로 40 분 ~ 50 분 소요
- 호르헤 뉴베리(Aeroparque Jorge Newberry) 국내공항
 - 우루과이, 이과수 및 국내 주요도시를 연결함
 - 시내 중심가에서 20 분 내외 소요되며 간혹 국내선의 경우도 에세이사(Ezeiza)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도착과 출발 공항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다. 시내교통

- 택시
 - 시내 교통으로는 택시이용이 가장 쉬운 편이며 운전사에게 거리이름과 번지만 주면 정확하게 안내해 줌
 - 요금은 앞 좌석 상부에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본요금은 1.98 페소이고, 거리 시간 병산제로 0.22 페소씩 추가되는데 통상 2 km 정도 거리에 8 페소(2.6 달러) 정도 임. 요금 지급시 팁 지불은 필요하지 않음
- 레미스(REMIS)
 - 자가용 영업차로 레미스 회사에 전화로 요청하면 콜 택시처럼 집이나 호텔에 도착함
 - 미터기는 없고 요금은 거리에 따라 정해지는데 택시보다는 안전도가 높아 현지인들의 이용도가 높음
 - 최근에는 택시 강도사건이 증가함으로 인해 택시를 거리에서 이용하는 것 보다 레미스 또는 콜 택시(Radio Taxi)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추가비용은 없음)
- 지하철(Subte: 숄테)
 -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5 호선까지 운영되고 있고 방사선 형으로 도심으로만 집중되어 있어 외곽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함.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함으로 주의해야 함
 - 지하철의 1 회 요금은 70 센타보(centavo)이고, 시간이나 거리 제한은 없으며, 다른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함
 - 2002년부터 6 번째 노선(H 노선)을 건설 중이고, 현 노선 중에는 A, B 노선을 확장 중에 있음
- 버스
 - 구간에 따라 요금이 상이(일반요금 80 센타보)하며, 노선이 복잡하여 지리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이 쉽지 않음
 -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지하철과 버스 간에 환승 제도가 없으므로 갈아탈 경우에는 요금을 새로 지불해야 함

라. 통신

- 시내전화
 - 스페인계 Telefonica 와 프랑스계 Telecom 이 유선 전화망을 양분하고 있음
 - 시내 전화 요금은 도수제와 거리에 따른 요금체계 등 이중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통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40 km 이상 떨어진 곳은 시외전화 요금이 적용됨

- 공중전화의 기본요금은 25 센타보로 동전을 넣어 사용하는 형태이며, 시내 중심지에서는 공중 전화기의 이용이 쉬움. 국제 전화 시 할인시간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사이임
- 전화 및 인터넷 방(Locutorio)
 - 아르헨티나 시내 및 주택가에 전화 및 인터넷 방(Locutorio)이 많이 생겨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음. 통화료는 공중전화와 같으며 국제 전화 시 시간에 따라 특별 할인요금이 적용됨
- 휴대폰
 - 무선전화 회사로는 Movistar(Unifon·Movicom 합병), Personal, CTI Movil 등 3개사가 있으며, 무선통화 서비스 가입자가 오히려 일반전화 가입자수를 초과한 상황임. 이 상황은 2004년 초부터 GSM 방식이 도입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국제전화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나 호텔 내 국제전화 요금은 높은 수준임 (10 분 통화 에 서울 통화기준 100 페소 이상 소요)

전화 사용 방법

국제 전화	부에노스아이레스 → 한국	일반전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
		휴 대 폰	00-82-11(핸드폰 앞자리)-전화번호
	한국 →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001(또는 002)-00-54-11-전화번호
		휴 대 폰	001(또는 002)-00-54-911-전화번호
국내 전화	시내통화(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 대 폰	15-전화번호
	시외통화	일반전화	지역번호 + 전화번호
		휴 대 폰	지역번호 + 15 + 전화번호

* 주요도시 지역번호: Buenos Aires 011, Bariloche 02944, Calafate 02902, La Plata 0221, Mar del Plata 0223, Cordoba 03547, Mendoza 0261, Neuquen 0229, San Juan 0264, Rosario(Santa Fe) 0341

- 국제전화는 콜백이나 전화카드의 사용이 추천할 만하며,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또는 현지 국제 전화카드를 구입,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불 전화카드의 경우도 호텔에서는 연결요금으로 통화당 10 페소 이상을 징수함으로 전화카드는 일반 공중전화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음

8. 호텔/식당

가. 호 텔

- 아르헨티나 호텔요금은 2002년도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저렴하지 않다.
 - 싱글 1박 기준 특급호텔은 미화 200~400 달러, 상급호텔은 미화 100~180달러, 일반 호텔은 미화 70~100 달러 수준임
 - 대부분의 경우 호텔요금에 부가가치세 21%가 별도로 부과됨
- 호텔 별 요금은 정상요금으로서 무역관을 통해 예약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1) 특급호텔

- 호텔명: ALVEAR PALACE HOTEL
 - 주소: Av. Alvear 1891, (C1129AAA)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808-2100
 - 팩스: 54-11-4804-0034
 - 예약: 54-11-4804-7777
 - Email: reserv@alvear.com.ar / info@alvearpalace.com
 - Home page: www.alvearpalace.com
 - 요금: 440 달러 (싱글, 트윈 / 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시내 중심에서 북쪽으로 15분 거리에 명품점과 대사관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200실 규모의 초특급 호텔
- 호텔명: HOTEL INTER-CONTINENTAL
 - 주소: Moreno 809, (C1091AAQ)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40-7100
 - 팩스: 54-11-4340-7199
 - 예약: 54-11-4340-7101
 - Email: buenosaires@interconti.com.ar
 - Home page: www.buenos-aires.intercontinental.com
 - 요금: 260 달러 (싱글, 트윈/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315실 규모로 '95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Av. de Mayo와 가까운 곳에 위치
- 호텔명: SHERATON BUENOS AIRES
 - 주소: San Martin 1225 (1104)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18-9000
 - 팩스: 54-11-4318-9346
 - 예약: 54-11-4875-4661
 - 요금: 179 달러 (싱글, 트윈) + 부가가치세 (21%)
 - Home page: www.sheraton.com/buenosaires
 - Email: reservas@sheraton.com.ar
 - 비고: 객실 742실 규모로 라 플라타(La Plata) 강이 한눈에 내려 보이며, 시내 쇼핑 거리인 플로리다(Florida)에 가까이 위치한 호텔로 전시회 및 워크숍 등이 많이 개최됨
- 호텔명: FOUR SEASONS HOTEL BUENOS AIRES
 - 주소: Av. Posadas 1086 (101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21-1200
 - 팩스: 54-11-4321-1201
 - 예약: 54-11-4321-1710
 - Home page: www.fourseasons.com/buenosaires
 - Email: reservation.bue@fourseasons.com
 - 요금: 310 달러 (싱글, 트윈/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세계에서 최대 노퍽을 자랑하는 7월 9일 대로(9 de Julio)와 도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변에 위치하고 있음. 비즈니스 센터와 회의공간을 갖춘 호텔 중 하나로 과거 하얏트 호텔이었음. 고급식당과 Patio Bullich 쇼핑센터가 근처에 있음

- 호텔명: HOTEL EMPERADOR
 - 주소: Av. Libertador 420 (100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131-4000
 - 팩스: 54-11-4131-3900
 - 예약: 54-11-4131-4005/6/7
 - Email: info@hotel-emperador.com.ar
 - Home page: www.hotel-emperador.com.ar
 - 요금: 150 달러(싱글, 트윈 / 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리베르타도르 대로(Av. Libertador)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호텔로 스페인계 체인 호텔 중의 하나임. 주변에 Four seasons 호텔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
- 호텔명: HOTEL HILTON
 - 주소: Av. Macacha Guemes 351 (1106) Puerto Madero, Cap. Fed., Buenos Aires
 - 전화: 54-11-4891-0000
 - 팩스: 54-11-4891-0001
 - 전화 예약: 54-11-4891-0101
 - 팩스 예약: 54-11-4891-0100
 - Home page: www.hilton.com
 - Email: reservation.buenosaires@hilton.com
 - 요금: 260 달러 (싱글, 트윈) + 부가가치세(21%)
 - 비고: 2002년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비즈니스 센터와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음

2) 상급, 비즈니스 호텔

- 호텔명: HOTEL PANAMERICANO BUENOS AIRES
 - 주소: Carlos Pellegrini 551 (1009),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48-5000
 - 팩스: 54-11-4348-5250
 - 예약: 54-11-4348-5100 / 5200
 - Email: hotel@panamericanobuenosaires.com.us
 - Home page: www.panamericanobuenosaires.com
 - 요금: 156 달러(트윈, 더블/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최대 거리인 7월 9일 대로(9 de Julio) 변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로 주요 상권, 정부부처, 금융센터 등과 가까움
- 호텔명: ARGENTA TOWER HOTEL & SUITES
 - 주소: Juncal 868 (1062)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25-4100
 - 팩스: 54-11-4326-7090
 - 예약: 54-11-4326-0506
 - Email: reservations@argenta-tower.com.ar / info@argenta-tower.com.ar
 - Home page: www.argenta-tower.com.ar
 - 요금: 308.50 페소 (Studio Suites, 32m², 거실, 식당 1인~2인용) 세금 포함
 - 비고: 간단한 조리할 수 있는 아파트형 신축호텔임

- 호텔명: SHERATON LIBERTADOR HOTEL
 - 주소: Av. Corodoba 690 (1054)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21-0000
 - 팩스: 54-11-4322-9703
 - 예약: 54-11-4321-0021/0022
 - Home page: www.sheraton.com.ar
 - Email: reserva@libertador-hotel.com.ar
 - 요금: 175불(싱글, 트윈 /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이 없음. 무역관과 도보 3분 거리

- 호텔명: MELIA BUENOS AIRES BOUTIQUE
 - 주소: Reconquista 945,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891-3800
 - 팩스: 54-11-4891-3834
 - 예약: 54-11-4891-3821 /3827/3817
 - Email: reservas@meliabuenosaires.com.ar
 - Home page: www.meliabuenosaires.solmelia.com
 - 요금: 140 달러 (싱글, 트윈 /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1999년에 새로 문을 연 스페인 Melia 호텔의 체인으로 중형 비즈니스 호텔로써
상가 및 은행가에 인접

- 호텔명: PESTANA BUENOS AIRES HOTEL
 - 주소: Carlos Pellegrini 877 (C1009ABQ)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5239-1112 / 1100
 - 팩스: 54-11-5239-1141
 - 예약: 54-11-5239-1101
 - Email: reservas@pestanabuenosaires.com
 - Home page: www.pestana.com
 - 요금: 115 달러 (싱글, 트윈 / 조식 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무역관과 도보 3분거리

3) 일반 호텔

- 호텔명: AMERICAS TOWER HOTEL
 - 주소: Libertad 1070, (1012),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815-7900
 - 팩스: 54-11-4815-9466
 - Email: reservas2@grupoamericas.com.ar
 - Home page: www.grupoamericas.com.ar
 - 요금: 싱글 76 달러/트윈 98 달러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호텔명: GRAND BOULEVARD HOTEL
 - 주소: Av. Bernardo de Irigoyen 432 (C1072AAJ)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5222-9000
 - 팩스: 54-11-5222-9010

- 예약: 54-11-5222-9020
 - Email: ventas@grandboulevardhotel.com
 - Home page: www.grandboulevardhotel.com
 - 요금: 100 달러 (싱글, 트윈 / 조식 포함) 세금 포함
- 호텔명: HOLIDAY INN EXPRESS
- 주소: Av. L. N. Alem 770 (1001),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 전화: 54-11-4311-5200
 - 팩스: 54-11-4311-5757
 - Email: reservas.arc@talbot.cl
 - Home page: www.holidayinnexpress.com.ar
 - 요금: 150 달러(싱글, 트윈/ 조식포함) + 부가가치세 (21%)
 - 비고: 알렘(Alem) 거리의 대형 비즈니스 빌딩들이 있는 곳에 위치

나. 식 당

1) 한식당

- 한국 교민사회 역사는 41년으로 교민수가 최대 4만 명을 넘기도 하였으나, 1998년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침체 여파로 경제위기가 표면화되면서 2002년 이후에는 2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음
- 한국 식당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한인촌(일명 백구)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아베자네다(Avellaneda) 및 온세(Once) 지역에도 일부 있음
- 한식당은 메뉴에 의한 주문 식당과 정식 식당(정액으로 음식 제공, 음료 제외)으로 나뉘며 찜계 기준 1인분 가격은 15 페소(US\$5) 선임

식당명	주 소	전 화	비 고
대원정	Castaños 2030	4634-1211	해물탕 등 (화요일 휴무)
궁전식당	Asamblea 1829	4631-4747	한정식 (월요일 휴무)
비 원	Junin 548	4372-1146	한정식 (일요일 휴무)
해운대	Thorne 1471	4924-9485	소갈비 전문
한오백년	Pumacahua 1629	4632-2691	설렁탕 등
장 터	Saraza 2054	4633-7936	설렁탕 등
도 모	Saraza 2020	4631-1576	한국식 일식요리
대성각	Carabobo 1334	4633-3829	한국식 중식요리(수요일 휴무)

2) 현지 식당

- 아르헨티나 현지식은 갈비구이인 아사도(asado)가 유명하고, 고급식당은 주로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지역과 코스타네라 노르테(Costanera Norte)지역에 밀집해 있음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Cabaña Las Lilas	Av. Alicia Moreau de Justo 516	4313-1336	아사도(스테이크) 전문
Happening	Av. Alicia Moreau de Justo 310	4319-8712/8	아사도 전문
Hereford	Av. Rafael Obligado s/n	4706-3882/3	아사도 전문
Aquellos Años	Av. Rafael Obligado s/n y La Pampa	4784-8681	아사도 전문
Relais & Chateaux	Ayacucho 2027 y Av. Alvear	4805-3857	프랑스식 최고급 식당
Sinclair	Sinclair 2086	4899-0283	스페인식 고급 식당
Katrine	Av. Alicia Moreau de Justo 138	4315-6222	프랑스식 전문

- 일식과 중식의 경우 아르헨티나 인의 어류소비 부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고급식당이 없는 편임

식당명	주소	전화	비고
YUKI	Pasco 740	4942-7510	일식 고급 식당/영업 : 19:30~23:30
Nihonbashi	Moreno 2095 y Rincon	4951-7381	일식 고급 식당 월요일 휴무/ 영업 : 19:30~24:00
Jardin Japonesa	Av. Casares 2966	4800-1322	일식 전문 식당/ 일본 정원 내 위치

9. 관공서 관행

가. 근무시간

- 정부 부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 일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이다.
- 단, 운전면허·세관 등 민원 부서의 근무시간은 아침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또는 아침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등으로 다름으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 관행

- 아르헨티나 인구의 95% 이상이 백인이다. 유럽 이민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행이 미국식보다는 서구적인 색채가 강하다.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유럽적이다.
- 관공서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정장 차림이다. 남자의 경우 진한 색조의 정장을 즐겨 입고 있다.
- 아르헨티나 관공서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서 ‘줄서기’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취득에 만나절 이상 소요)

10. 공휴일

가. 2006 년도 공휴일

일자	요일	명칭(스페인어)	명칭(한글)	비고
1. 1	일	Año Nuevo	신정	
3.24	금	Aniversario del Golpe de Estado	군사혁명일	
4. 2	일	Día del Veterano y de los Caidos en la Guerra de Malvinas	포클랜드 전쟁 전몰자 추념일	
4.13	목	Jueves Santo	성목요일	부활절
4.14	금	Viernes Santo	성금요일	부활절
5. 1	월	Día del Trabajo	노동절	
5.25	목	Día de la Revolucion de Mayo	혁명기념일	
6.19*	월	Día de la Bandera	국기의 날	
7. 9	일	Día de la Independencia	독립기념일	
8.21*	월	Muerte del General San Martin	산마르틴장군 서거일	원래 8.17
10.16*	월	Día de la Raza	미주대륙 발견일	원래 10.12
12. 8	금	Inmaculada Concepcion	성모수태일	
12.25	월	Natividad de Nuestro Sr. Jesucristo	성탄절	

주: * 표시의 국경일은 법률 23555 호(공휴일법)가 적용되어 매년 변경된다. 국경일이 화 또는 수요일이 될 경우 당해 주의 월요일로 변경되며, 목 또는 금요일이 될 경우 다음 주의 월요일로 변경된다. 단, 국기를 만든 마누엘 벨그라노 장군을 기리는 ‘국기의 날’과 해방의 영웅 ‘산 마르틴 장군 서거일’은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월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 표시는 공휴일 법에 따라 추후 일자 변경 가능

나. 출장계획 유의사항

12 월 초부터 다음 해 2 월 말까지 3 개월은 여름 휴가 시즌으로 상담을 위한 현지 출장방문 시기로는 부적합하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 준비

1) 기후 및 의복

-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정반대의 남반구에 있어 계절이 정반대이다.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이다. 월별로 12 ~ 2 월은 여름, 3 ~ 5 월은 가을, 6 ~ 8 월은 겨울, 9 ~ 11 월은 봄으로 출장이나 여행시 이에 맞추어 의복을 준비하면 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지역은 사계절이 있다. 겨울철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나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2) 전기규격

- 가정·사무용 전기는 200 V, 50 Hz 이다. 아르헨티나의 전자제품 연결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3 나이프(knife) 모양이다. 한국(220 V 원형)이나 미국(110 V 1 자형)의 연결구가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별도의 커넥터를 준비해야 한다.

나. 여행 여건

1) 치 안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나라였으나, 2001 년 말부터 경제 침체와 국가부도 사태에 따른 빈민·실업자 증가로 은행 및 슈퍼마켓 강도,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 살해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외출 시 신변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택시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단체로 이동해야 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지에는 낮에 외출하여도 큰 문제가 없으나, 새벽 또는 야간에 혼자 도보로 산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이 필요한 경우 2 ~ 3명 이상이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인촌(일명 백구)의 경우 치안이 좋지 않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 고가품이나 과다한 현금 등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항공권·고가품·현금 등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택시

- 시내 교통으로는 택시 이용이 가장 쉽고 편하다. 택시 운전사에게 거리 이름과 번지만 가르쳐 주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준다.
- 택시 요금은 앞 좌석 위에 설치된 미터기에 따라 지불하면 된다. 기본요금은 1.96 페소이고, 거리시간 병산제에 따라 0.22 페소가 추가되는데 통상 2km 거리의 택시요금은 8~9 페소 정도이다.
- 팁은 가방을 들어 주는 등 특별한 호의를 받은 경우에 소액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 택시 강도사건이 증가함으로 인해 길 거리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 보다 콜택시(Radio Taxi)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다.(추가 비용은 없음)
- 택시 이외에 레미스(Remis)라는 자가용 영업차량이 있다. 레미스(Remis) 회사에 전화로 요청하면 요금을 안내해 주고 요청한 장소까지 온다. 택시보다 저렴하여 현지인들의 이용도가 높다.

3) 팁 문화

- 호텔 : 침대 위에 1 달러(또는 2 페소) 정도 놓으면 된다. 포터의 경우 보통 1 달러 정도(또는 2 페소) 주면 되고 가방 수가 많은 경우 1 달러 정도 더 주면 된다.
- 현지식당 : 음식값의 다과에 따라 5 ~ 10%

4) 식 수

- 출장자나 여행객은 생수를 호텔 또는 슈퍼에서 구입하여 마실 필요가 있다.
- 생수는 가스가 없는 sin gas(썬 가스)와 가스가 있는 con gas(콘 가스)가 있다.

12. 유용한 연락처

아르헨티나 비상연락 전화

소방서(화재) 100, 경찰 101, 의료 및 구조요청 107, 일반안내 110, 시간안내 113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한국대사관	Av. del Libertador 2395	4802-8865/9665
KOTRA 무역관	Av. Cordoba 950 Piso 2	4393-3110
재아 한인회	Balbastro 615	4926-0567
한아경제인연합회	Av. Nazca 388 Piso 1	4611-6624
아베자네다 상조회	Aranguren 3219 Piso 3	4637-1086/87
온세 상조회	Castelli 109	4952-8857

한국인 병원

병원명	주 소	전화번호
한국종합병원(MIK)	Av. Juan B. Alberdi 3255	4637-8006
Korean Medical	Nazca 388 5p	4611-3184

언론사

언론사명	주 소	전화번호
중앙일보	Av. Carabobo 845/57	4631-0061
한국일보	Hortiguera 1779	4924-8500/8502

한국인 여행사

회사명명	주 소	전화번호
대림여행사	Carabobo 1624	4633-7666
대한여행사	J.D. Peron 2481 P.1	4954-5880
미래로여행사	Zuviria 2100	4633-5995/6049

주요 항공사

항공사	주소	전화번호	
		예약	공항
Aerolineas Argentinas	Bouchard 547 Piso 8	4330-3000	
Air Canada	Av. Cordoba 656 PB	4327-3640	
Air France	San Martin 344 P23	4317-4700	4480-0524
American Airlines	Av. Santa Fe 881	4318-1111	
Copa Airlines	C. Pellegrini 989 Piso 2	4132-3535	5480-4630
Lan Chile	Cerrito 866	4378-2222	4480-0021
Malaysia Airlines	Suipacha 111 P 14	4312-6971	
Mexicana	Av. Cordoba 755 Piso 1	4000-6300	5480-0256
United Airlines	Eduardo Madero 900 PB	4316-0777	
Varig	Av. Cordoba 972 P.3y4	4329-9200	

13. 관광명소

가. 쇼 핑

1) 물 가

- 아르헨티나의 공산품 가격은 1991 년부터 미화 환율이 1:1 로 고정되어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높았다.
- 아르헨티나 물가 수준은 2002 년 평가절하 이후 이전보다 낮아졌다. 육류·과일 등 기초 생필품과 공공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통제로 낮은 편이나 공산품 특히 수입 제품은 고 관세·부가가치세(21%)·추가 부가세(10%)·내국세 등의 부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이다.

2) 쇼핑장소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쇼핑장소로 우리의 명동과 비슷한 지역인 플로리다(Florida)와 라바예(Lavalle) 거리가 유명하다.
-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 거리는 자동차 없는 거리로 직각으로 만나고 있다. 쇼핑물·극장가·패스트푸드점·전자제품점·의류가게·가죽제품점·서점·식당 등이 몰려있고 외국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적당한 장소이다.
- 최근 고급 쇼핑센터는 시 외곽 또는 고급 주택가 쪽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플로리다(Florida) 거리와 코르도바(Cordoba) 대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Galerias Pacifico' 쇼핑센터는 고급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점이 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다.
- 쇼핑센터나 전문상점 중 'Tax Free'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세금환급 용지를 받아 공항(Ezeiza)에서 출국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특산품

- 아르헨티나 특산품으로서는 가죽제품 · 암염 · 꿀(로얄제리) · 장미씨 오일 등이 있다.
- 가죽제품은 쇼핑센터나 시내 곳곳의 가죽제품 전문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 암염과 꿀은 중량 화물로 운반도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로서 제 3 국으로 반출 반입 시 통관도 쉽지 않아 관광객이 구매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나. 관광명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40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관광 명소로는 시내 중심지로 상가 밀집지인 센트로(Centro), 대통령 궁 등이 위치한 몬세라트(Monserrat), 유럽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레콜레타(Recoleta), 초기 도시의 형성지인 보카(Boca), 벼룩시장이 열리고 옛 정취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산 텔모(San Telmo) 등 5 개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센트로(Centro)

- 7 월 9 일 대로(Avenida 9 de Julio) :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로 세계에서 도로 폭(140m)이 제일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벨리스코 : 7 월 9 일 대로에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건립 4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6 년에 세워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 콜론극장(Teatro Colon) : 파리 오페라 극장, 밀라노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 대 극장으로 꼽히는 예술의 전당으로 1908 년 건설되었다. 600 명의 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무대와 2,700 석의 객석(입석까지 최대 4,000 명)을 자랑하고 있다.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므로 유럽의 일류 극단이 피서를 겸해서 공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명동과 충무로 격으로 주요상가가 밀집한 플로리다(Florida) 거리와 극장들이 모여 있는 라바예(Lavalle) 거리도 둘러 볼만한 곳이다.
 - 플로리다 거리(Calle Florida) : 산 마르틴 광장에서 5 월 대로(Avenida de Mayo)와 만나는 곳까지의 약 1 km 의 상가거리로 유명점, 레스토랑, 갤러리, 서점 등이 밀집되어 있다.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붐비고 있다.

2) 몬세라트(Monserrat)

- 5 월 광장(Plaza Mayo) : 식민지 시대부터 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광장의 중앙에 독립 기념비가 서 있고 주요 거리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Casa Rosada) 에 면해 있어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모든 역사적, 정치적 사건의 무대며 증인이라고 하겠다.

-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Casa Rosada)는 1873년 당시 사르미엔토(Sarmiento) 대통령이 여당의 빨간색과 야당의 흰색을 조합한 장미색을 양 정파간의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색칠한 데 연유하고 있다.
- 스페인 로코코 풍의 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까지 건설되어 역대 대통령의 공식 행사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쓰이기도 했고,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영부인이 10만 명이 전국에서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 5월 광장(Plaza de Mayo) 북쪽의 대성당(La Catedral)에는 독립의 영웅 산 마르틴의 묘가 있고, 서쪽에는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카빌도(Cabildo : 총독부)가 있다.

3) 레콜레타(Recoleta)

- ‘파리의 거리를 옮겨 놓은 듯 하다’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 풍의 건물, 식당, 유명 브랜드 의류점 등이 산재하여 있고 고급 주택가로도 유명하다.
- 각 거리마다 동상이나 조각들이 산재하여 있고 레콜레타 문화센터, 국립 미술관과 에비타(Evita)의 무덤이 있는 레콜라타 묘지(Cementerio de la Recoleta)가 소재하고 있다.
-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 엘 그레코, 모네, 고갱, 고호 등 중□근세 유럽 유명작가와 아르헨티나 일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면적 9,750㎡의 2층 박물관으로 1만여 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에비타(Evita) 무덤이 있는 레콜레타는 아르헨티나 유명인사의 가족 묘지로서 조그만 대리석 묘원에는 누대의 유골이 함께하고 있다. 에비타(Evita)의 무덤을 찾기 쉽지 않고 규모 또한 크지 않아 막상 도착하면 실망하기 쉽다.
 - 에비타로 불린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 영부인은 사생아로 태어나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냈지만 여배우가 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다. 미모와 영화 같은 인생 이력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 레콜레타 묘지 (Cementerio de la Recoleta)
 - 1882년 사방 150m 규모로 개설된 유서 깊은 묘지로, 이 중 70여개의 묘는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4) 보카(Boca) 지역

- 라플라타(La Plata) 강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최초에 이탈리아 제노아 출신 이민자들의 거주지였으며, 18세기 이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일한 항구였다.
- 보카지역에는 아르헨티나 최고 축구 클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보카 주니어스(Boca Juniors)의 홈 구장이 있다. 화려한 원색으로 치장한 카미니토(Caminito) 거리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명소이기도 하다.
- 이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층의 집단 주거지로 야간에는 치안이 나빠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산 텔모(San Telmo) 지역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역사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시 당국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리 형태, 건물 등을 옛 모양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데펜사(Defensa) 거리와 브라질(Brazil) 거리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레사마(Lezama) 공원은 1536 년 돈 페드로 데 멘도사(Don Pedro de Mendoza)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처음 세운 곳이다. 그 후 이 지역은 부두 노동자의 주거지로 변모하였으며, 1871 년 황열병의 창궐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계속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 매주 일요일 아침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도레고 광장(Plaza Dorrego)에서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다. 인근에는 골동품 상가가 밀집하여 있어 아르헨티나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 또한 발카르세(Balcarce) 역 부근에는 Michelangelo, La Ventana 등 유명 탱고클럽이 밀집하여 있다.

6) 기타 지역

- 국회의사당(Congreso Nacional)은 민주주의와 입법권을 상징하는 그레고로만 양식의 위엄 있는 건물이다. 이탈리아인 빅토르 메아노(Vitor Meano)가 설계하여 1897 년에 건축을 시작, 1906 년에 완공되었다. 5 월 대로를 통하여 대통령궁(Casa Rosada)과 연결되어 있다. 광장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복제품, 기념비와 분수대가 있어 일반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5 월 광장과 더불어 정치 집회가 많은 곳이다.
- 팔레르모 공원(Bosque de Palermo)은 세계 3 대 공원 중의 하나로 총면적 7.7 km²의 부지에 경마장(Hipodromo), 장미공원(EI Rosedal), 동물원(EI Zoologico de Buenos Aires), 식물원(Jardin Botanico), 골프장, 테니스 코트가 있어 시민들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주변에는 각국 대사관과 고급 맨션이 나란히 지어져 있는 고급 주택가가 있다.

□ 지방 관광명소

1) 마르 델 플라타(Mar de Plata)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00 km 떨어져있는 해안 휴양도시다. 고급호텔, 카지노, 놀이공원, 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의 하나이다. 2005 년 11 월에는 미주정상회담이 개최된 곳이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자동차로는 5 시간, 항공편으로는 1 시간이 소요된다.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성수기는 12~2 월 여름철이다.

2) 이과수 폭포(Las Cataratas de Iguazu)

- 1984 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자연유산이라 지정되었다. 이과수 폭포는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와 세계 3대 폭포로 손꼽힌다.
- 영화 '미션'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과수 폭포는 남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밀림 속에 있는 폭포로 브라질 쪽과 합해 약 300 개의 폭포가 떨어지는 폭포 중의 폭포라 할 수 있으며,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답고 장엄한, 문자 그대로 세계 제일의 폭포이다.
- 크기는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보다 훨씬 웅장하다. 높이는 물론 폭포의 길이도 나이아가라 보다 훨씬 더 긴 4 km 에 이른다. 폭포 자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에 걸쳐 있다.
- 이과수란 과라니어로 '큰 물' 을 의미한다. 17 만 헥타르의 이과수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이곳은 평균 70m 의 높이를 가진 275 개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함께 어우러져 초당 5,000 m³ 의 물을 쏟아낸다.
- 둘레만도 4.3km 에 달하는 이과수폭포는 파라과이, 브라질과 국경을 이루는 곳이기도 한데 혹자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본 이과수 폭포가 제일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보나 장엄하며 물줄기가 매우 크고 거세어 오솔길을 따라 폭포 밑으로 접근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다.
- 그리고 폭포 한 가운데로 피어 오른 무지개는 세계 최대의 폭포이자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곳에 경외감마저 느끼게 한다.
- 폭포수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자연환경도 더없이 신비로워 수천 수백 가지의 수목과 희귀한 조류, 나비와 포유류들이 이 위대한 자연의 품 안에서 자란다.
- 멀리서 보는 광경도 장관이지만 몇 미터 전방까지 설치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폭포의 물 벽은 마치 갈라진 홍해바다의 물 벽을 연상케 할 정도로 대단하다. 보트를 타고 폭포 바로 앞까지 가는 것은 무섭기도 하지만 폭포의 진수를 경험하는 코스이다. 영화 미션에서 폭포의 물줄기를 따라 절벽을 오르는 선교사의 감동을 느끼게 한다.
- 이과수 폭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300 km 떨어져 있으며, 항공편으로 1 시간 40 분이 소요된다. 항공 사정상 당일 관광은 불가능하고 충분한 관광을 위하여서는 2 박 3 일 정도가 소요된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양국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항공로를 상파울로-이과수-부에노스아이레스 편으로 하는 것도 시간 및 예산 면에서 유리하다.

3) 바릴로체(San Carlos de Bariloche) - 남미의 스위스

- 남미의 스위스란 별칭을 갖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항공으로 2 시간 소요된다. 파타고니아의 관문 바릴로체는 아르헨티나 최고 관광지로 인근의 도시 산 카를로스과 함께 스키와 스포츠의 중심으로 유명한 곳이다.

- 나우엘 우아피 호수, 만년설로 덮힌 산과 울창한 산림이 발달하고 있다. 시내명소로 시청과 파타고니아 박물관이 있으며 유람선을 이용하여 빅토리아 섬, 마들 산림, 푸에르토 블레스트 도시까지 환상의 여행을 할 수 있다.
- 계절에 따라 스키, 승마, 낚시, 레프팅, 트레킹 등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호수 유람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국경 도시 푸에르토 프리아스에서 출국철차를 마치고 칠레로 육로 입국이 가능하다.

4) 살타 주의 ‘구름 기차’ (Tren de las Nubes)

-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 길의 하나로 꼽히는 ‘구름으로 가는 기차’의 길이는 총 1,350km 이고 왕복시간은 15 시간이다. 도중에 29 개의 다리와 21 개의 터널, 13 개의 고가 교량 등을 통과하며, 매우 높은 곳을 달리기에 구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구름으로 가는 기차라고 알려지고 있다.
- 이 기차는 식당시설, 숙박시설, 의료진, 가이드, 비디오 룸, 음악 감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5) 아콩카구아(Aconcagua)

- 아콩카구아는 잉카 문명권의 공용어인 깨추아 말로 ‘흰 수호신(파수꾼)’을 뜻하고, 볼리비아와 페루의 인디언인 아이마라족 말로는 ‘돌의 수호신’을 의미한다.
- 아콩카구아 산은 아르헨티나 서부에 위치한 멘도사 주의 라스 에라스(Las Heras)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경선을 형성하지 않는다. 아콩카구아 산은 지구 좌표 상으로는 서경 59~69°, 남위 32~39° 에 위치한다.
- 서쪽과 남서쪽으로는 로스 오르코네스 계곡(Valle de Los Horcones Inferior)과 경계하고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라스 바카스 계곡(Valle de Las Vacas)과 접하고 있다.
- 아콩카구아 산 주위에는 5,000 미터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우뚝 서 있다. 오르코네스 수페리오를 계곡에 쿠에르노(5,450m), 카테드랄(5,200m), 보네테(5,100m), 데로스데도스(5,000m) 등이 위치하고 있다. 오르코네스 인페리오 계곡에는 미라도르(5,800m), 이바오에스(5,200m), 알마세네스(4,800m) 등이 위치하고 있다. 데라스바카스 계곡에는 아메기노 (5,800m), 피츠제랄드(5,300m), 산타 마를라(5,100m)가 있다.

6) 칼라파테(Calafate)와 페리토 모레노 빙하(El Glaciar Perito Moreno)

-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빙하 국립공원이다. 읍살라 빙하의 경우 칼라파테에서 유람선을 이용하여 접근한다. 페리토 모레노 빙하의 경우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호수 남부의 육지면에 있는 폭 4km 의 빙하로 호수면 위로 60m 우뚝 솟은 파란 빙하가 약 200 km²의 대지를 덮고 있다.
- 간혹 엄청난 굉음과 함께 빙하가 호수위로 부서져 내리며 대자연의 신비를 연출한다.

7) 우수아이아의 비글해협과 남극(Canal de Beagle y La Antartida)

-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섬 남쪽에는 비글 해협이 있다. 1829 년 4 월부터 1830 년 8 월에 걸쳐 영국해군 '비글' 호와 '어드벤처' 호가 그 부근의 수로를 조사할 때 '비글' 호의 갑판 사관인 머레이가 발견했다.
- 마젤란 해협을 중심으로 남미 대륙과 떨어져 있으며 칠레와 절반 정도로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 명소로 파그나오 호수와 라파타이아 국립공원, 옛날 감옥, 박물관이 있다. 우수아이아는 스키와 낚시 애호가들의 천국이다. 독수리, 펭귄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대성 식물이 자란다. 티에라 델 푸에고 주의 우수아이아 항구에서 관광 유람선이 운항하며 다리섬, 새섬, 비글운하, 물개섬, 빙하, 등대 등을 관광한다.
- 우수아이아가 티에라 델 푸에고 섬 남쪽연안에 있어 지금은 비글 해협과 남극을 관광하는 관광선의 출발지가 된다.
- 비글 해협은 티에라 델 푸에고 섬(Isla Grande del Tierra del Fuego)과 그 남쪽의 칠레영토인 커다란 섬 두 개, 곧 동쪽의 나바리노 섬과 서쪽의 호스테 섬 사이에 있는 동서방향의 해협이다. 위도로는 마젤란 해협이나 르 매르 해협보다도 남쪽이다. 길이가 약 200 km 이며 폭이 평균 3.7 km 정도이다. 동쪽이 거의 직선이나 서쪽에서는 북서수로와 남서수로로 나뉘어진다.
- 비글 해협이 문자 그대로 ‘남쪽의 해협’이라는 점도 유명하나, 해협주변에 빙하 - 폭포 - 절벽 - 숲 -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경치가 대단히 좋아 더욱 유명하다. 그 가운데서도 해안에 평행한 수목생장 한계선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할 아름다움과 신기함이 있다. 또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옥색 빙하와 하얀 폭포와 진한 초록색 숲과 새파란 바다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잊지 못할 풍경이 된다. 하얀 물살을 가르며 가끔 나타나는 돌고래와 이름 모를 새도 아름다움을 더 한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수입관리제도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기본원칙 아래 수입관리 제도로 네거티브 시스템(예외적으로 명시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을 운영하고 있다.
- 수입자의 자격요건은 법인·개인 구분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납세번호(CUI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나. 관세법(Codigo Arancelo)

아르헨티나에 수출입 관련법은 ‘법령 22415/81 호’이다. 동 법은 3 개의 서문과 16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 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 문 : 적용 범위, 수출입 개념 규정, 수출입 상품의 개념 규정
- 1 장 : 법적 주체
 - 세관의 조직, 기능 및 권한
 - 수출입자 및 기타 관계자 개념 규정
- 2 장 : 적용범위
 - 일반 규정
 - 적용 범위
- 3 장 : 수입규정
 - 물품의 도착 및 수입지
- 4 장 : 수출규정
 - 수출지 및 물품의 발송
- 5 장 : 수출입 일반규정
- 6 장 : 통관관련 특별규정
 - 운송관련 규정
 - 특수물품 (군수, 안보관련 차량 등) 취급 규정
 - 컨테이너, 소화물, 선용품, 소포, 샘플, 외교관면세품 등 취급규정
 - 재수입품, 국경운송, 구호물자 등 취급 규정
- 7 장 : 세관 적용 범위
 - 영해 및 대륙붕
 - 무관세 지역
 - 특별 관세지역
- 8 장 : 수출입 금지규정
 - 금지형태
 - 금지범위
 - 제한적 금지
 - 수출입금지 설정 및 해제
- 9 장 : 세제 규정
 - 수입관세,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세, 특혜관세, 통계세, 창고세 등
- 10 장 : 수출촉진 규정
 - 관세 환급
 - 기타 수출촉진관련 절차
- 11 장 : 상호주의 특별규정
- 12 장 : 통관관련 벌칙규정

- 13 장 : 관세우선 규정
 - 관세 우선납부 규정
- 14 장 : 절차 규정
- 15 장 : 보완조치 규정
- 16 장 : 경과조치 규정

다. 법령 제 2248/91 호

수입자유화 조치를 위해 입법되어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할당 등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대폭적으로 철폐한 바 있다. 자동 수입승인 품목의 경우 수입 허가신청을 하면 수입 통계시스템(REDI: Regimen Estadístico de Importación)에 입력되어 자동 승인되고 있다.

라. 수입 절차

- 1) 수입계약
- 2) L/C 개설 : L/C 개설 관련 담보 및 예치금 요청 등으로 소액은 T/T 선호
- 3) 수출상 물품선적
- 4) 수입상 서류인도
- 5) 수입물품 도착 : 항구 및 공항
 - 통관절차
 - 통관사 선정, 통관 업무개시 및 수입신고 : 물품도착 후 15 일 이내
 - 수입품내역 세관신고 및 물품검사 신청 : 물품도착 후 23 일 이내(구비서류 : B/L, 상업송장 원본 1매 사본 3매, Packing List, 필요 시 원산지 증명서)
 - 세관통관 심의: 3 ~ 5 일 소요
 - 재세금 납부
 - 도착항구 목적지 세관에서의 수입화물 반출: 해상 수입은 물품 도착 후 90 일 이내, 육상수입은 물품 도착 후 30 일 이내

□ 통관절차 특별조치

- 1997 년 3 월 탈세와 세관의 부정부패의 사전방지 및 창고화물 적체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행정령(379/97)으로 물품도착 후 15 일 이내에 통관수속을 필하도록 규정
- 내륙지방 목적지 세관에서의 수입화물 반출
 - 1997 년 4 월, 도착지 항구 세관창고 보관기관을 10 일로 단축(밀수단속 명분)
 - 화물운송업체는 화물목적지 도착 시까지의 보험가입과 US\$10 만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조치

마. 수입규제 제도 및 품목

- 수입자유화 원칙 하에서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 및 기타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각 시행령을 통해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제적인 요인 : 적절한 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 물가안정, 재정수요의 확보 등
- 비경제적인 요인 : 지적재산권의 보호, 건전한 상거래유지 및 공공의 안정과 국가의 안보, 국제정책, 공공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
- 수입금지 품목 : 일부 중고품에 한해 해당하고 있으며, 매 6 개월 단위 등으로 시한 부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수입제한제도 및 품목

- 의약품 및 보건 위생제품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 수입업자, 상품등록을 하여 사전승인을 득하는 경우 수입 가능
-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은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을 필요

수입금지 품목 현황

품 목 명	HS CODE	관련 규정	비 고
중고 타이어	401220	법령 25626/02	
중고 모터사이클	8711	경제부 시행령 790/92	
중고 의류	6309	경제부 시행령 504/2000	
중고 자동차	8407/8408	경제부 시행령 504/2000	HS 코드 8404.90.200 은 제외
중고 엔진		경제부 시행령 529/94	
중고 의료기기	901920	경제부 시행령 529/94	

주: 상기 수입 금지품목 이외에 HS 코드 84, 85, 86, 87, 88, 89, 90 류에 해당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경제부 시행령 909/94 호에 의거, 일정한 품질규격 심사 및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수입 가능

주요 수입 제한품목 및 내용

품 목 명	규 제 내 용
의약품	보건부 수입업자 및 상표등록
화장품, 식품	상품은 통관 전 등록 및 수입승인
농수산물	산 동물 및 식품(가공품 제외) 검역
통신기기	- 국가통신위원회(CNT) 사용허가 및 수입승인 - 법령 1185/90 호(CNT 설치구성, 운용 및 기능관련 법규) 적용

16.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 고용창출, 환율유지, 국내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 요인 ▶ 지적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 개별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여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 중에 있다.

1) 수입금지

중고품(예: 중고 타이어, 중고 자동차, 중고 엔진, 중고 의류)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2)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담당기관은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로 업계의 제소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현지업계의 수입규제 청구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는 2000년도 30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05년 7건으로 감소하고, 올해 5월까지 수입규제 청구가 없는 등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 최근 수입규제 청구 및 조사 건수: (00) 30건 → (01) 15건 → (02) 4건 → (03) 9건 → (04) 16건 → (05) 7건 → (06. 5월 기준) 없음

○ 아르헨티나는 06년 6월 기준 41건(반덤핑 37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1건)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규제 41건 중 볼 베어링 등 10건은 수입규제 연장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수입규제 현황

연번	상 품 명	대상국	조치	발효일	기간
1	볼 베어링	중국	반덤핑	04/12/2002	2 년
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덤핑	10/12/1999	5 년
3	알루미늄 인화물로 제조된 살충제	중국	반덤핑	27/12/2002	2 년
4	에어컨 제품	중국	반덤핑	24/02/2003	2 년
5	스테인리스 강제의 튜브(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의 것)	브라질, 대만	반덤핑	21/05/2003	2 년
6	Quizalofop - p- Etil	일본	반덤핑	25/06/2002	3 년
7	유회용 카드	중국	반덤핑	15/11/2002	3 년
8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중국	반덤핑	17/12/2002	3 년
9	보온병(철제)	중국	반덤핑	09/01/2004	2 년
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브라질, 러시아	반덤핑	02/03/2001	5 년
*11	고무제 공기타이어(자전거용)	인도	반덤핑	27/05/2003	3 년
12	드릴링용의 공구	브라질	반덤핑	21/07/2004	2 년
13	휘일 림과 스포우크	중국, 대만	반덤핑	22/07/1998 24/07/2001	2 년 5 년
14	스틸 디스크 (농업기계용)	스페인	반덤핑	31/07/2001	5 년
15	보온병(유리제)	중국	반덤핑	30/10/2001	5 년
16	카바이드	폴란드	반덤핑	21/11/2001	5 년
17	유물질용 스틸배관	일본	반덤핑	15/12/2001	5 년
18	복숭아 (벡트링을 포함한다)	EU	상계관세	10/01/1996 09/01/2002	5 년 2 년

				18/12/2004	2 년
19	절연전선·케이블(동제)	칠레	반덤핑	20/12/2001	5 년
20	나무로 된 옷걸이	중국	반덤핑	24/12/2003	3 년
21	올리브유	EU	상계관세	03/07/98 03/07/01 01/01/05	2 년 2 년 2 년
22	연필	중국	반덤핑	23/02/2002	5 년
23	PVC 서스펜션	미국, 멕시코	반덤핑	24/04/03 23/04/04	3 년
24	철 또는 비합금강의 편평압연제품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반덤핑	30/04/2002	5 년
25	자전거	중국, 대만	반덤핑	23/11/1995 27/05/2002	5 년 5 년
26	드릴링용 공구	중국	반덤핑	17/08/2000 14/08/2003 06/08/2004	3 년
27	밀의 글루텐	EU	상계관세	23/07/1998 28/05/2003 24/08/2004	3 년
28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중국	반덤핑	09/10/1997 19/10/2000 20/10/2004	2 년 3 년 3 년
29	칼라 TV	마나우스(브라질)	세이프가드	01/01/2005	3 년
3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남아공, 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반덤핑	11/01/2003	5 년
31	고무제 공기타이어(자전거용)	브라질	반덤핑	22/02/2005	3 년
32	고무제 공기타이어(자전거용)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반덤핑	21/03/2003	5 년
33	유리섬유(실, 직물로 구성)	뉴질랜드	반덤핑	25/03/2003	5 년
34	고무제 공기타이어(자전거용)	브라질	반덤핑	01/04/2005	3 년
35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한국, 남아공, 호주, 대만	반덤핑	28/05/2003	5 년
36	고무제 공기타이어(자전거용)	브라질	반덤핑	14/06/2005	3 년
37	안경	중국	반덤핑	07/07/2005	3 년
38	폴리에스터 직물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반덤핑	22/08/2005	3 년
39	세라믹 위생제품(양변기 등)	브라질, 우루과이	반덤핑	19/12/2005	3 년
40	살충제	인도	반덤핑	27/03/2006	3 년
41	유리섬유(실, 직물 구성)	남아공화국	반덤핑	18/04/2002 04/04/2006	3 년 5 년

주1 : 연번 1~10은 만기 완료되었으나 수입규제 연장 조사 중으로 반덤핑 규제가 유효함

주2 : 연번 11번은 수입규제 해제여부 확인 불가

자료원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최신자료(2006. 8월 자료)

3) 수입할당(Quota)

자동차, 신발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수입할당제도는 없다.

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2006년 8월 기준)

1) 2005년도 신규 제소 및 판결 내용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자료에 의하면 한국산으로 2005년도에 신규 제소되어 조사가 개시된 건은 없다.
- 최근 연도 한국산 신규 제소 추이: ('00) 2건 → ('01) 2건 → ('02) 없음 → ('03) 1건 → ('04) 1건 → ('05) 없음 → ('06) 없음
- 2004년 2월 조사 개시된 한국산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하여 2005년 8월 22일 반덤핑으로 최종 판결 (단 한국산에 대하여는 한국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수용)
- 2004년 12월 조사 개시된 한국산 'PET'에 대하여 2005년 9월 22일 반덤핑 무혐의로 최종 판결

2) 대한 수입규제 내역(2006년 8월 기준) : 3건

① 규제품목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12개 품목(냉연강판)

- HS코드 : 7209.12.00 / 7209.16.00 / 7209.17.00 / 7209.18.00 / 7209.25.00 / 7509.26.00 / 7209.27.00 / 7209.28.00 / 7209.99.00 / 7211.23.00 / 7225.50.00 / 7226.92.00
- 제소자 : Siderar S.A.(아르헨티나 최대 철강업체)
- 규제일자
 - 조사개시일 및 근거: Resolucion 161/2001(2001. 7.19)
 - 예비판정일 및 근거: Resolucion 79/2002 (2002. 4.30)
 - 최종판정일 및 근거: Resolucion 17/2003 (2003. 1. 8)
- 규제형태 : 반덤핑
- 판정내용 : 반덤핑 관세 60.46% 부과
- 규제기간 : 2003. 1.13 ~ 2008. 1.12(5년)
- 규제대상국 : 한국, 남아공,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4개국

국별 판정내용

국가명	한국	남아공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최종판정	60.46%	83.07%	71.22%	80.61%
예비판정	50.58%	88.44%	182.76%	137.83%

② 품목: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8개 품목 (아연철판)

○ HS 코드 : 7210.49.10 / 7210.61.00 / 7212.30.00 / 7212.50.00 / 7225.9200 / 7225.99.00 / 7226.94.00 / 7226.99.00

○ 제소자 : Siderar S.A.

○ 규제일자

- 조사개시: Resolucion 21/2002 (2002. 5.30)
- 예비판정: Resolucion 117/2002 (2002.12.26)
- 최종 판정: Resolucion 281/2003 (2003. 5.23)

○ 규제형태 : 반덤핑

○ 판정내용 : 반덤핑 관세 49.67% 부과

○ 규제기간 : 2002. 5.30 ~ 2008. 5.29(5년)

○ 규제대상국 : 한국, 남아공, 호주, 대만 등 4개국

③ 규제품목 : 폴리에스터 직물 2개 품목

○ HS 코드 : 5407.6199, 5407.6900

○ 제소자: Foderami S.A., Chiarito San Luis S.A., Chiarito Hermanos S.A., Textil World S.R.L

○ 규제형태

- 조사개시 : Resolucion 37/04 (2004. 2.23)
- 예비판정 : Resolucion 261/04 (2004. 9.29)
- 최종판정 : Resolucion 458/05 (2005. 8.22)

○ 규제기간 : 2005.8.22 ~ 2008. 8.22 (3년)

○ 규제형태 : 반덤핑, kg당 FOB 최저수출가 지정

판정내용

HS코드	상품명	원산지별 최저가격(US\$/kg)
54076100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필라멘트 직물	인도네시아 7.50, 한국 7.59
5407690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기타직물	인도네시아 6.58, 한국 6.56

주: 단 한국 업체 성안 등 6개 사의 경우 HS 코드 5407.6100의 kg당 6.9불, 5407.6900의 경우 kg당 5.96불을 3년 동안 적용

17.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 아르헨티나는 ▶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최혜국 관세율 ▶ 중남미통합 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중남미통합연합 회원국 특혜관세(법령 제 3869/84 호)
 - 1980 년의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하여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rgacion)
 - 1981 년 3 월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중남미 11 개국이 유럽공동체와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설립, 발족
 -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 개국으로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 있음
- 남미공동시장 특혜관세
 - 남미공동시장은 1991 년 3 월 아순시온 협정이 체결된 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간에 협상을 진행, '94 년 12 월 30 일 협상을 종결하고 1995 년 1 월 1 일부로 발효하였다.
 -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상품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간의 역내관세는 원칙적으로 무관세이나, 1994 년의 '결정 제 24 호'에 의해 4 개 회원국은 경과조치로 예외품목을 선정하고, 섬유, 신발, 철강 등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 및 쿼터 등을 유지하고 있다.

나. 관세율

- 원칙적으로 종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품목 분류는 HS 코드를 기초로 8 단위 또는 9 단위로 되어 있고, 6 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 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 되어 있다.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 단위로 되어 있으며, 이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표에 별표로 명기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의 일반 관세는 WTO 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 일수록 관세가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관세율	품 목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 국내 미 생산 제품
4.5~12.5%	1 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35%), TV(21%) 등

- 대외공동관세
 - 199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에 의거한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2% 간격으로 9 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대외공동관세는 아르헨티나가 현실적으로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가 아니고 2006 년 1 월 1 일까지 일반관세를 대외공동관세 수준으로 맞추고자 목표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관세이다.

- 이 대외공동관세는 HS 코드 8 단위 기준으로 총 8,500 개 품목이며, 기존 관세와 대외 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 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 2001 년 또는 2006 년까지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 주요 예외품목별 대외공동관세 변동 내용

- 철강제품(72, 73, 74, 76 및 78 류): 현행 관세율(24%)을 대외공동관세율(12 ~ 16%) 수준까지 점진적 인하
- 신발류 17 개 품목: 현행 관세율(30%)을 대외공동관세율(20%) 수준으로 인하
- 장난감 및 가전제품: 현행 관세율(24%, 29%)을 대외공동관세율(20%) 수준으로 인하

다. 수입관련 제세

1) 관세 : CIF x 관세율

- 관세율 표에 기재된 각 세번 별 세율에 따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세율이 적용

2) 통계세 : CIF x 0.5%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기준 0.5% (1998 년 1 월 이전은 3%)의 통계세가 부과
- 잠정수입, 면세수입에는 면제되며,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의 경우도 통계세 면제

3) 부가가치세(IVA) : (CIF + 관세 + 통계세) x 21% (자본재의 경우 10.5%)

-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21% (단, 자본재의 경우 10.5%)

4) 추가 부가가치세 : (CIF + 관세 + 통계세) x 10%

- 국내 판매이익 예상금에 대한 선납세 개념으로 위 부가세와 추가부가세는 추후 정산함
- 부가세, 추가부가세는 선납세 개념으로 추후 부가세 확정 납부 시 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선납으로 인한 수입상의 운전자금 및 비용 증가로 수입상의 경우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5) 소득세 : (CIF + 관세 + 통계세) x 3%

- 수입상은 수입물품에 대해 3%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 정산함

6) 내국세(Internal Tax) : 시장판매가격 x 내국세율

- 주류, 담배, 보석류, 전자 등 사치품에 대해서는 7 ~ 50%에 이르는 내국세가 부과됨

7) 기타 제세

-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

라. 관세환급제도

- 수출촉진을 위한 전통적 제도의 하나로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통계세, 기타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준다. 1960 년 법령 22415 호에 근거하여 건 별 평가로 시행되어 왔으나, 1991 년 7 월 3 일부터 자동 환급제도로 전환하였다.
-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부자재의 소요증명을 상공청의 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환급을 받게 되고, 일단 확인을 받은 반복 수출건은 자동 확인이 되며, 상공청은 90 일 이내에 이를 사후 심사하게 된다.

< 관세환급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수출관세환급(DRAW BACK): 관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주민증 사본
- 내국세 환급: 선적허가서, 회사설립 인가서, 내국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마.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 밀수행위는 6 개월 ~ 12 년의 형벌을 부과하고, 5,000 불 미만의 소액 밀수는 2~10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 밀수를 방조하는 행위 또는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와 불성실한 세관신고나 인보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상품의 선적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8. 주요인증제도

< 아르헨티나 인증기관 >

아르헨티나에서 상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IRAM, INTI, SENASA, ANMAT 등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아르헨티나 공업기술청 (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 주소 : Av. Gral. Paz 5445(B1650KNA) San Martin, C.C. 157
- Tel/Fax : (54-11)4724-6200/6300/6400
- Email : certific@inti.gov.ar
- 홈페이지 : www.inti.gov.ar
- 인증분야 : 식품, 자전거, 가스 관련제품, 신발, 전기 관련제품, 시멘트, 완구, 포장재, 종이 관련제품, 타이어, 자동차부품 등 주로 공산품이 해당됨
- 업무내용 : 아르헨티나 및 국제 공업 규격규범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인증서 부여
- 소요기간 : 5 ~ 11개월

□ 아르헨티나 식품 위생 품질청 (SENASA ;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 Tel : (54-11)4331-6041/9

- Fax : 0054-11-4331-6042
- E-mail : relint@senasa.gov.ar
- 홈페이지 : www.senasa.gov.ar
- 인증분야 : 축산제품, 식물관련 제품, 농수산물 관련제품
- 업무내용 :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물 산하 기관으로 동식물 관련 제품의 위생 검역 및 인증 담당
- 소요기간 : 동물, 식품 관련제품은 통상 3~4개월, 농수산물 관련제품은 통상 6개월 소요

□ 아르헨티나 공업 규격 인증청 (IRAM ;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ion y Certification)

- 주소: Peru 552/556 (1068) C.F. Buenos, Aires, Argentina
- Tel/Fax: (54-11)4346-0600
- E-mail: iram@iram.org.ar
- 홈페이지 : www.iram.org.ar
- 업무내용 : 공업규격 인증 승인(우리나라 KS 마크와 유사)
- 분야 : 소비재, 농식품, 전기, 가스 등

□ 아르헨티나 식약청 (ANMAT ; 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ia Medica)

- Tel : (54-11)4340-0800
- Fax : (54-11)5252-8200
- Email : ndurand@anmat.gov.ar
- 홈페이지: www.anmat.gov.ar
- 업무 : 의료기기,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위생과 품질 관리를 위한 등록
- 소요기간 : 3~7개월 소요

19. 지적재산권

가. 개 관

- 아르헨티나는 파리협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협정 체결국이다. WIPO 회원국이고 GATT 우루과이 라운드가 정한 의약품에 포함한 특허권 보호협정을 기탁한 바 있다.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상호 등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어 지적소유권(Patents, Trade Marks, Copyrights, Computer Software)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등록 후 2년 이내에 사용개시를 하여야 함

나. 특허권

-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5년, 10년, 15년 단위로 승인되며, 갱신할 수 없다.

- 외국 특허의 경우 자국 등록 후 12 개월 이내에 아르헨티나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며, 10 년간 특허권을 갱신할 수 있음
- 특허권의 이전이 가능하며, 특허권 등록 후 2 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거나 보호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됨

다. 상표권

-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 년이며, 보호기간 종료 전 5 년간 사용되었을 경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 외국 상표권의 경우 자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후 6 개월 이내에 아르헨티나 특허청에 등록해야 함

라. 저작권

- 관련법규: 법률 11723 호(시행령 165/94)
- 관련부처: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산하 산업 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 보호대상: 문학, 예술, 음악, 과학 관련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리적 표시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군 등은 보호되지 않고 있음)
- 보호기간
 - 음악, 문학작품: 등록자의 생존기간 (상속 시에는 70 년간 연장/ 1997 년 8 월 개정)
 - 신문, 잡지: 1 년 (갱신 가능)
 - 소프트웨어: 3 년
- 외국인 저작권 보호
 - 국내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국립 지적재산권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보호됨
 - 보호기간: 외국 저작권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아르헨티나 법규 기간 내로 한정)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미약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

< 주요 연락처 >

- 아르헨티나 산업 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PI)
 - 주소 : Paseo Colon 717 (1063)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54-11)0800-222-4674 / (54-11)4344-4967/68
 - 팩스 : (54-11) 4343-5286
 - 홈페이지 : www.inpi.gov.ar
- 아르헨티나 발명가 협회(Asociacion Argentina de Inventores, AAI)
 - 주소 : Ciudad de la Paz 394 (1426)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54-11)4553-6009/6351
 - 팩스 : (54-11)4555-0662
 - 홈페이지 : www.inventores-aai.org
 - 이메일 : aai@ciudad.com.ar

20. 소비자보호제도

가. 개 관

- 아르헨티나에서 소비자 보호단체는 1981 년에 결성되었다. 소비자 보호법은 1993 년 법률 제 24240 호(1993. 10.15)로 제정되어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 소비자 보호법은 모든 경제주체가 판매 상품에 대해 생산 및 판매 과정의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법 위반 시 최소 500 페소에서 최고 50 만 페소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
- 이외에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으로 독과점방지법, 개인비밀 보장법 등이 있다.

나. 소비자 보호 정부기관

- 소비자 보호 유관 정부기관으로는 경제생산부 내 소비자 보호국(Subsecretaria de Defensa del Consumidor)과 소비자중재원이 있다. 주요 활동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접수 및 이에 관한 해결 조치이다.
- 이 기관에 접수되는 연간 소비자 불만 건수는 5,000 건 내외이다. 주요 불만 내용은 상품 변질, 광고내용과 상이한 상품 판매, 제품 작동 불량, 신용카드·의료보험 등의 서비스 저하 및 수수료 과다 등이다. 소비자 고충에 대한 처리는 접수건수의 80% 내외이다.
- * 소비자 보호국(Subsecretaria de Defensa del Consumidor)
 - 주소: Julio A. Roca 651 Piso 4 Sector 1(1321),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4349-4182/4071 /0-800-666-1518
 - 홈페이지: www.consumidor.gov.ar
 - 이메일: consultas@consumidor.gov.ar / scycdc@minproduccion.gov.ar
- 소비자 불만 접수 후 최대한 30 일 안에 소비자와 기업 간의 중재모임을 가지며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소비자 중재원으로 이첩된다.
- * 소비자 중재법원(Tribunales Arbitrales de Consumo): 1998. 3 월 개원
 - 주소 : Julio A. Roca 651 Planta baja sector 8(1321), Buenos Aires, Argentina
 - 근무시간 : 월 ~ 금 9:00 ~ 17:00
 - 전화 : (54-11)4349-4172/ 4175/ 4168
 - 이메일 : snac@minproduccion.gov.ar
 - 설립목적: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법정소송 없이 신속 해결
 - 구성 : 정부임명(3 명), 소비자 보호단체 및 기업 협회 추천 인사
 - 재판관 구성 : 관계 당사자가 재판관 명단에서 선정
 - 대상 송사: 소비자보호법 위반 및 소비자 권리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
 - 내용
 - 송사 처리 기한: 4 개월 이내- 법원 판결의 효력
 - 벌금형은 부과하지 않고, 상품교환 또는 반품 명령
 - 판결에 대해 항소 불가

다. 소비자 협회

주요 활동은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등 사회전반의 소비자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 아르헨티나 소비자 협회(ADELCO; Asociacion del Consumidor) : 1981년 창립
 - 주소 : Tte. Cnel. J.D.Peron 1558 Piso 7(1037)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 (54-11) 4371-2662/0846/8821/0865
 - 팩스 : (54-11) 4375-3737
 - 홈페이지 : www.adelco.com.ar
 - 이메일 : aldeco@speedy.com.ar
- 아르헨티나 소비자보호협회(ADECUA; Asociacion de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de la Argentina)
 - 주소 : Callao 225 Piso 1 (1022)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팩스 : (54-11) 4374-5420/0420
 - 홈페이지 : www.adecua.org.ar
- 아르헨티나 공공서비스 소비자보호협회(Asociacion Civil Cruzada Civica para la Defensa de Consumidores y Usuarios de Servicios Publicos)
 - 주소 : Av. Cordoba 2011 Piso 3 (1120) Capital Federal,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팩스 : (54-11)4963-1655
 - 이메일 : sedecentral@cruzadacivil.org.ar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수출입 담당기관

1)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상공청

- 관세법(법령 제 22415/81)에 따라 경제생산부 내 상공청이 수출입 관리 주무부서이다. 수출입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 절차,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Ministerio de Economia y Produccion)
 - 주소 : H. Yrigoyen 250 (1310) C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 Tel : (54-11) 4349-5000 / 5010 / 5020
 - 홈페이지 : www.mecon.gov.ar

2) 아르헨티나 관세청

- 실무 담당기관으로 행정령 제 599/76 호와 제 695/77 호에 따라 정책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나. 수입 규제 담당기관

- 아르헨티나 산업피해 조사를 통한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는 아르헨티나 무역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무역 위원회(CNCE; Comisió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 Paseo Colon 275 Piso 7 - Buenos Aires - CP 1063, Argentina
 - Tel : (54-11)4348-1710
 - Fax. (54-11) 4348-1711/35
 - 홈페이지 : www.mecon.gov.ar/cnce/index.htm

22. 시장 특성

가. 중남미 3위 경제대국

- 국내 총 생산(GDP) · 무역 규모에서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3위, 3,900 만 명 시장

나. 농 · 목축 등 1차 산업 발달

- 아르헨티나는 농 · 목축 국가로 총 수출의 약 53%가 농 · 축산 · 광산 등 1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르헨티나 인구 3,900 만 명 대비 소(牛) 사육은 5,300 만두를 상회

다. 고도의 공산품 수입 의존시장

-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에 의존
- 주요 품목별 수입의존도
 -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79%, 가전 · 통신기기 60%, 의료 · 광학기기 62%, 일반기계 51%, 기초 화학제품 36%, 수송기기 34%, 석유류 18%, 플라스틱 제품 15%

라. 수입대체 활성화 추진

- 수입대체 활성화 분야: 식품, 음료수, 라디오, TV, 가스레인지, 난로, 건축자재, 의류, 가죽, 신발, 종이, 농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등
 - 키르츠네르 현 대통령은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통한 재 공업화 추진 중

마. 유럽계 다국적 기업 지배시장

- 1980 년 후반 메넴 정권은 시장개방, 공기업 민영화, 자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력, 통신, 원유생산, 상수도, 항공, 공항운영, 고속도로 등 주요 공기업 민영화에 유럽계 다국적 기업 진출 활발
- 아르헨티나 100 대 기업 전체 매출액 2,317 억 달러 중 외국계 기업의 매출액은 1,653 억 달러로 전체의 71.3%를 차지

- 외국계 중에서는 스페인계가 압도적으로 100 대기업 중 석유, 전화, 가스, 항공부문의 4개 기업 매출액은 307억 달러로 13.2% 차지

바. 대형 유통망 확대

- 소매상 중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까르푸, 코토, 월마트 등 다국적 대형 유통망의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
- 최근에는 중국계 소매점(Autoservicio)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2006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4,500개 추정)

사.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한 가격시장화

- 경제침체 및 중산층의 빈곤화 등의 영향으로 저가품 시장 확대 추세(전체 인구 3,900만 명 중 빈곤층이 2천만 명을 상회함)
- 고급 브랜드 마케팅 퇴조, 가격 위주 마케팅 필요

아. 외상수입 보편화로 인한 수출자 신용 제공 필요 시장

- 아르헨티나는 관행적으로 외상거래를 하다가 디폴트 이후 대부분 현금, L/C 거래에 응해왔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D/A 등 외상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L/C의 경우 개설 수수료가 5%에 달해 대부분 기피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금 일부(20~30%)를 T/T로 송금하고, 잔금은 CAD(cash against documents)로 하는 경우도 많음

자. 남미공동시장(MERCOSUR) 역내 진입장벽 돌파 필요

- 브라질의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점유율 34.4%, 우루과이 1.02%, 파라과이 1.92%
 - 무관세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내 투자진출 활성화 필요
- 일례로 핸드폰의 경우 주요 기업 브랜드의 원산지는 브라질임

차. 수입규제 강화 추세

- 국내산업보호에 의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06년 8월 기준 한국산은 철강, 섬유 등 4개 품목 수입규제 중)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국가로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에 한계가 있다.

- KOTRA 해외시장 조사대행 활용
 - www.kotra.or.kr을 참조하여 무역관에 바이어 조사를 신청

- 전문 전시회 참관 또는 전시회 참가업체 디렉터리 활용
 - 전시회 참가업체의 경우 각 전시회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활용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buenosaires)의 전시정보 항목을 참조
- KOTRA 자료실의 아르헨티나 바이어 정보 활용
 - Directorio de Importadores Argentinos CD (America Edita 발간)
 - * 매년 아르헨티나 수입상 정보 CD를 구입하여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음
 - Guia de la Industria 2006
 - * 산업분야 별 취급업체 디렉토리를 구입하여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음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아르헨티나에서 온라인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 검색엔진의 경우 스페인어로 검색이 필요하여 언어 문제가 있고, 이외 사이트는 대부분 회원가입과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Datos Virtuales : www.datosvirtuales.com
 - 중소기업에 위한 무역정보, 업체자료, 뉴스 제공
- Interpymes.net : interpymes.net
 - 중소기업 디렉터리로 전시회, 이벤트, 강의 정보
- Paginasamarillas : www.paginasamarillas.com.ar
 - 텔레포니카 전화 회사가 운영하는 옐로우 페이지
- Ferias y Congresos : www.feriasycongresos.com.ar
 - 전시회, 각종포럼 캘린더로 전시회 별로 참가업체를 검색할 수 있음

25. 상담 요령과 비즈니스 에티켓

가. 바이어 접촉 가이드

1) 거래제의 단계

-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우송하기 이전에 우선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
 -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회사소개, 홈페이지 및 제품소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

- 바이어와 몇 차례의 교신 후 상호 인지도 및 거래관심도가 어느 정도 제고되었을 때에 회사 소개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을 비롯하여 가능하면 샘플을 포함한 거래 관련 일체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
 -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홈페이지, e-Book 등의 형태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선호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2) 검토결과 문의

-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일 예상일자에서 대략 1 주일이 지난 뒤에는 자료의 수령여부 확인과 아울러 검토결과를 문의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자료송부 후 곧바로 문의하게 되면 거래제의 업체 쪽에서 너무 독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함
-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를 문의할 때에 먼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3) 회사 및 제품소개서 작성

-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급 종으로 인쇄된 자료를 파일에 첩한 형태(바인더)로 회사 소개서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은 회사소개서를 팩스 1 ~ 2 장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에게 회사소개서를 보낼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국가 별 바이어들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상세한 회사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 아울러 제품소개서는 가급적 많은 양의 자세한 제품 관련 자료와 함께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약간 두꺼운 파일 형태로 편철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과거 한국의 한 업체가 제작한 7 장짜리 제품소개서를 가지고 오퍼를 하였더니 바이어 측에서 독일 업체로부터 받은 자세한 내용의 제품소개서를 보여준 사례가 있었음
 - 회사와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업체의 얼굴과도 같은 회사소개서와 제품소개서를 제대로 만들어 제공할 때에 바이어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 소개서와 제품소개서의 철저한 준비는 중요함

4) 전화통화 시 유의사항

- 국제전화 고비용으로 기피
 - 아르헨티나에도 인터넷 폰 등이 보급되어 국제전화에 어려움은 없으나, 기존의 국제전화 고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대부분의 바이어는 국제전화를 걸지 않고 있음
- 담당자와 통화 시 안내 필요
 - 아르헨티나 바이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후에는 영업때문에 자리에 없는 담당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독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비서에게 외출 중 또는 여행 중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빈번함

- 비서와는 친분형성 필요
 - 아르헨티나 업체에서는 현지 비서들의 입김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와의 친분형성에 못지않게 바이어 사무실의 비서와도 친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재촉하는 인상을 주지 말 것
 -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는 타입으로 바이어에게 전화로 재촉하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
 - 이럴 경우에는 매일 전화를 걸음으로써 조급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2 일 혹은 3 일의 간격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편이 추천됨
- 바이어로부터의 무 회신에도 지속적인 연락 필요
 - 아르헨티나 바이어와 거래할 때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함. 곧바로 회신하고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가 내일 연락하겠다고 해놓고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언어상의 문제도 있지만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만만디 스타일이거나 또는 실제로 여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에 신경을 쓰면서 연락을 취하도록 해야 함

5) 사용언어 및 연락 시간대

- 영어 사용 20% 내외
 - 무역관이 접촉한 경험으로는 수입상 중 20% 내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거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거래제의 교신 시에나 통화로 회사 및 제품 소개 시에는 가급적 스페인어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과 12 시간 시차
 - 아르헨티나 바이어와 통화 시 가급적 현지시간으로 오전 시간 중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담당자는 오전에 잠깐 회의를 가진 후 12 시까지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시차가 12 시간임
(한국이 8 월 26 일 오후 10 시이면 아르헨티나는 동일 오전 10 시)
 - 50% 이상의 아르헨티나 기업은 팩스를 전화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팩스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세날 데 팩스, 뽀르 파보르(Señal de Fax, Por Favor)"라고 말하면 팩스 신호음이 들리면서 송신이 가능하게 됨
(전화라인이 많은 회사도 팩스 전용선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나. 상담 유의사항

1)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

-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

- 전통적으로 유럽국가와 교역을 실시하여 왔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 중국정도를 인지하는 상태임. 2004 년 11 월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순방 및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 확대에 의해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개선 추세에 있음

2) 아르헨티나 바이어 명함

- 성명은 2 개 내지 3 개로 되어 있고 스페인과 달리 母姓은 쓰지 않음
 - Pablo Redondo ; Pablo 는 이름, Redondo 는 姓
 - Antonio Lopez Crespo ; Antonio 는 이름, Lopez Crespo 는 姓
- 직위는 회사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음
 - 사장 : Presidente, Director General, 이사 : Director, 부장(과장) Gerente(사장의 경우도 Director 를 쓰는 경우도 있음)
- 이외 이름 앞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음
 - 박사 : Dr.(doctor), 학사 : Lic.(licenciado), 공학사 : Ing.(ingeniero) 상대방에게 이러한 학력을 호칭하는 경우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예 : 리센시아도 로페스(licenciado Lopez

3) 아르헨티나 현지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

- 2001 년 말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 선언’ 에 이은 2002 년 초 폐소화 평가절하로 인하여 수입 수요가 아예 실종된 바 있음
 - 당시 정부의 외환 보유고 방어를 위한 해외송금 규제로 필수적인 제품의 수입조차도 바이어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좌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하는 등 변칙적인 수입 상거래가 대부분이었음
- 2002 년 하반기 이후 해외 송금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는 합법적인 T/T, L/C 등에 의한 거래가 가능
 - 2005 년엔 디폴트 해소 등 사업여건 개선 및 소비자 구매력 향상으로 300 억불 선에 근접할 전망

4) 상담 전 바이어 기질 □ 시장특성 □ 상관행 숙지 필요

□ 바이어 기질

- 유럽인이라는 자존심
 -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후손으로 남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매우 강함
 -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 , 휴양도시 바릴로체를 ‘남미의 스위스’ 등으로 부르고 있음
- 강한 보수성
 -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들이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하여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긍정적 측면도 있음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거래를 해오고 있어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최근 유로화 강세에 따라 아시아 등 신규 거래선 발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매너 중시
 -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은 여타 남미권에 비해 매너를 중시하므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경어를 사용하며 복장도 정장 착용이 바람직함
 - 식사를 할 때는 유럽과 같이 포도주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으로 포도주 음주매너 및 포도주 상식도 필요함. 아울러 아르헨티나포도주의 우수성에 대한 찬사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임
- 反 영국 감정 고려
 - 영국에 대해서는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 국민적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국을 긍정적 측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함. 특히 포클랜드는 ‘말비나스’라고 표현해야 함
-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날씨, 축구 등을 화제로 시작
 -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매우 강함.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으뜸가는 축구 강호로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바이어를 은근히 치켜 세워주는 화법이 필요함
 -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좋은 공기"라는 의미)라는 도시명처럼 아르헨티나는 공기가 매우 상쾌해서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띄워준 다음 본론에 들어가면 상담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음

5) 민족 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추진

- 아르헨티나 국민은 원래 이탈리아, 스페인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계 이민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중동계, 아시아계 및 남미 주변국 이민자가 소수민족을 형성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유럽식 문화에 남미의 라틴풍 문화가 교묘하게 접합된 이색적 문화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민족구성의 영향으로 아르헨티나 바이어와 상담 시에 어느 민족의 이민 후손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담하는데 훨씬 수월해 지는데 대체로 성과 이름을 통해서 80% 이상의 구별이 가능함
- 이탈리아계
 - 전형적인 가족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업체의 방문 시 식사초대는 물론 전 가족을 소개시켜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하나, 가장 중요한 가격조건 등 계약관련사항은 통상 3~4일 일정으로 현지체류 시 마지막 날 불쑥 꺼내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한국업체의 경우도 기존 거래 바이어였기 때문에 접대를 잘 받고 일이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출국 전인 마지막 날 예상했던 거래조건을 바꿔 외상거래를 요구해 와 당혹해 한 사례가 있었음
 - 이태리계의 경우 겉으로는 말이 많고 기분파인 것 같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비즈니스 면에서는 절대 일치하지 않음을 한국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임

- 스페인계
 - 스페인계의 경우는 대체로 인사가 바르고 친절해 보이거나, 황인종에 대한 약간의 인종 차별을 느낄 수 있으며, 상담 시 자주 쓰는 Si(Yes)나, Bueno(Good)라는 말이 곧바로 주문이나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음
 - 처음 아르헨티나 스페인계와 상담한 한국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관용어투에 거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주문이나 결제조건까지 들어가서 Si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진정한 Yes가 아님
- 러시아, 중동 유대인계
 - 러시아, 중동 유대인계와는 처음부터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협상을 시작하고 양보해야 할 부분과 절대 양보해선 안 될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협상하면서 어느 정도 저주는 척하면서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 상담 중에 ‘안 팔고 말지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식의 고집을 부려 계약이 안타깝게 못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일례로 상품거래 조건에서 합의를 못 이룬 후 바이어가 자체 생산을 위하여 플랜트(기계)를 팔 수 없겠느냐는 요구에 기분 나빠서 못 팔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냉철하게 판단해보니 기계라도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음

6) 기타 상담 유의사항

- 바이어 사무실 방문상담 필요
 - 현지 해외 세일즈 출장 시에는 가급적 바이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편이 좋음. 실제 구매의사가 높은 바이어일수록 국내업체가 사무실 또는 공장으로 찾아오길 원하는 경우가 많음
- 독점 에이전트 요구 시 품목별, 모델별로 에이전트 부여
 - 현지 바이어들은 상담 시 처음부터 독점 에이전트를 달라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 바이어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처음 거래이므로 전 품목을 에이전트로 주지 말고 품목별 또는 모델 별로 나누어서 에이전트를 주고, 향후 거래관계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보고 품목 또는 모델을 늘려가는 식으로 하자고 유도하는 것이 권장됨
- 현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을 많이 하는 관계로 친한 사이가 되기 이전에는 먼저 결혼 여부 및 자녀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상담 시 의견이 다르다고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서 흔드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됨. 일례로 한국의 업체가 바이어와 상담 시 돈다발을 흔들면서 결제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어가 동 행위를 인격 모욕적인 행위라고 항의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어 무역관을 당혹스럽게 한 적이 있음
- 바이어 입장을 고려할 때 크리스마스 및 여름휴가철(12월말~2월)기간 중에 방문하는 것은 현지 바이어가 일보다도 오히려 휴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되도록 이 기간에 방문은 예의상 피하도록 해야 함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최초 주문은 최소 주문량(minimum Order) 이하

- 디폴트 및 평가절하로 경제환경이 어려워져 최소 주문량 이하로 주문하고 소비자 구매력 감소 때문에 가격을 중시하는 바이어가 크게 늘고 있음

나. 신용 조사

- 바이어 신용조사는 D&B report 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도 중요하지만 바이어로부터 bank reference, supplier reference, customer reference 등을 받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동종 업계의 경쟁사 또는 전후방거래선 및 상조회 등을 통해 신용도를 알아보는 것도 정확한 정보 수집에 큰 도움이 됨

다. 계약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음. 현지 상관행상 꼭 'Contract Sheet' 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종종 Proforma Invoice 로 대체할 수 있음. 이 Proforma Invoice 에 바이어의 Counter Sign 을 받아서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Claim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음

라. 클레임 대처

-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만족스런 클레임 처리를 해주면 거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어 클레임 발생시 최대한 성의껏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함

마. 선적서류 작성 유의

- 제반 선적서류 작성에 대해 바이어가 계약 시 잊고 간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아르헨티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 등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필요. 특히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해 price list 등에 영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지체 비용이 커짐. 더욱이 일부 선금 송금 후 선적하고 잔금은 선박 도착 직전에 내면서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서류가 잘못되면 문제가 큼

바. 탈법 언급은 금물

-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현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 기재 하면 절대 안됨

- 과거에 국내 모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보낸 팩스에 ‘필요하면 언더밸류를 해 줄 수 있음’ 이라고 기재한 것이 현지 메이커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음

사. 공급선 상황 수시 U/D

- 현지 바이어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갑작스런 통고로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은 지양. 현지인들은 전통적으로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임
- 또한 전자 제품의 경우 신 모델 정보 등 당장 바이어가 구매하지 않는 것이라도 수시로 바이어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좋음

아. 거래기록 유지 관리

- 문제 발생시 현지 바이어(특히 유대인 경우)는 자사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 업체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음.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짐
- 특히 바이어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정보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공. 바이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요청한 자료를 추후 문제 발생시 바이어에게 유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27. 통관절차

가. 통관업무 흐름도

1) 입항 및 하역확인

- 국제공항에 화물이 도착할 경우 'Maria System'을 통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 타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3) 수입신고

4) 수입물품 검사신청

- Canal Verde(즉시 통관대상), Canal Naranja(서류심사 대상), Canal Rojo(서류 및 물품검사 대상), Canal Morado(유치 품목)로 분류, 수입물품을 검사

5) 관세 등 세금 납부

6) 물품통관

나. 수입신고 방법

- 통관신고는 Maira System(S.I.M.; Sistema Informatico Maria)으로 명명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 에서 'Maria System' 으로 접속하여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됨
- 입력이 마감되면 'Maria System' 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 검사 방법이 지정되어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됨

다. 세관검사 방법

- 1999. 1. 19 부터 수입품의 언더밸류 및 관세포탈 방지를 목적으로 세관검사 방법에 적갈색 검사제도(Canal Morado) 추가 도입하였음
 -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 서류심사 후 통관, 1~2 일 소요
 -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 일 소요
- 적갈색 검사제(Canal Morado) : 세밀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으로 10 일 내외 소요
 -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식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 년간 수입된 평균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을 6 개월 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 보증금 공탁

라. 관세 등 세금 산정방식

-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통상 수입가격(CIF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92 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가격 모니터링 제(REDI)에 따라 아르헨티나 관세청이 고시하는 품목은 수입 최저 기준가격이 적용됨
- 아르헨티나 수입 시 부과되는 제세금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산 정 방 식
대외세 (A)	관세	CIF 가격 x 관세율
	통계세	CIF 가격 x 0.5%
		* MERCOSUR 역내제품, 잠정수입, 면세 수입 시는 면제
대내세 (B)	부가세	(CIF + A) x 21.0% (자본세의 경우 10.5%)
	추가부가세	(CIF + A) x 10.0%
	소득세	(CIF + A) x 3.0%
내국세		시장가격 x 내국세율 (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 해당)

주 1: 기타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

주 2: 부가세, 추가부가세, 소득세는 국내 판매 이익 예상액에 대한 선납세로 추후 정산

마. 통관 서류

- 수입신고서
- 선적관련 서류 :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 포장명세서(P/L) ▶ 수출업자가 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등

바. 소요시간 및 세관 업무시간

- 선적서류의 기재 정도와 '컨테이너'의 경우 FCL 인지 LCL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의 경우 평균 3일, 해상화물인 경우 4~5일 정도 소요되며, 세관의 업무시간은 월 ~ 금, 08:00~13:00 / 14:00~17:00 임

사. 기타 통관 유의사항

-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 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심사를 초래하고 있음으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 및 수입가 신고로 통관 지연 및 벌금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28. 운송

가. 개 요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항공·해상·육상 교통망이 가장 발달한 국가였다. 최근에는 교통망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부족하여 노후화되고 있다.
 - 철도는 35,753 km에 달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하여 승객 및 화물 수송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 전국 도로망은 38,132 km(도로 포장률 81%)으로 버스·승용차·트럭 등 도로 교통수단이 승객 수송의 87%, 화물 수송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물동량 중 90%는 해로 또는 수로를 이용하여 운송되고 있는데, 주 교역 대상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는 주로 수로를 통하여 교역을 하고 있다.

나. 공 항

- 아르헨티나에는 57개 공항이 있고 이중 27개가 국제 공항이다.
 - 33개 공항이 현재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공항 이용승객은 1,100만 명이다. 앞으로 22억 2,800만 달러가 투자되어 공항 이용객 수를 2010년 2,300만 명, 2025년 3,4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 Aeropuerto Internacional Ministro Pistarini (Ezeiza 국제공항)
 -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국제공항으로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3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Aeropuerto Internacional Ministro Pistarini
 - 주소: Autopista Tte. Gral. Riccieri s/n (1802), Ezeiza
 - 전화: (54-11) 5480-6111
 - 홈페이지: www.aa2000.com.ar
- Aeroparque Jorge Newberry (국내 공항)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북서쪽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선 전용 공항이나 인접 국인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나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왕복 아르헨티나 국적 항공기는 국제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항에서 운항되고 있다.
 - 미국 American Airline 등의 경우는 부에노스아이레스-몬테비데오 구간을 운항하고 있으나, 도착 및 출발지는 에세이사(Ezeiza) 국제공항이다.
 - 다만, 공항 사정상 국내선의 경우도 가끔 에세이사(Ezeiza)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Aeroparque Jorge Newbery (국내공항):
 - . 주소: R. Obligado s/n (1425) Capital Federal
 - . 홈페이지: www.aa2000.com.ar

다. 항 구

- 대서양 해변을 따라 38 개의 항구와 주요 강변을 따라 25 개의 항구가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항구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국제항구로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의 약 90%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최고처리 용량은 1,200 만 TEU 이다.
 - 라 플라타(La Plata) 항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남쪽으로 60 km 거리에 있는 라플라타(La Plata) 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이외에도 대서양연안에 위치한 Bahia Blanca, Quequen-Necochea, Comodoro Rivadavia, Puerto Madryn 등도 주요 항구들이며 이들은 주로 어업활동의 중심항구 역할을 한다.
- 주요 홈페이지
 - 아르헨티나 항구: www.puertosedargentina.com.ar
 - 부에노스아이레스 항: www.puertobuenosaires.gov.ar

29. 분쟁해결 절차

- 아르헨티나에 중재제도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무역분쟁 발생시 수출자, 수입자 양자 간 합의를 통하거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 거래 시 계약서에 무역 분쟁 시 해결방법을 적시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중재위원회(CEMARC)는 아르헨티나 상업회의소의 관할 하에 있으며 무역 분쟁에 있어 아르헨티나 기업은 전통적으로 국제재판을 이용하여 왔다.
 - 이는 아르헨티나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곡물, 에너지 등을 교역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 분쟁 금액도 큰 것에 연유하는데 최근 중소 수출입 업체가 증가하면서 중재위원회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아르헨티나 상업회의소(CAC: Camara Argentina de Comercio)
 - 주소: Av. Leandro N. Alem 36 - C1003AAN - Buenos Aires - Argentina
 - Tel: (54-11) 5300-9000
 - Fax: (54-11) 5300-9058
 - 홈페이지: www.cac.com.ar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탈법 언급은 금물

바이어가 수출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현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면 절대 안 된다.

과거에 국내 모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밸류를 해 줄 수 있음" 이라고 기재한 것이 현지 메이커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나. 주문 모델과 다르게 선적

< 사례 1>

국내 S사는 아르헨티나 B사와 1년의 교신 끝에 마침내 계약이 성사되어 선적을 하게 되었으나 담당자 실수로 일부 주문모델을 다른 모델로 잘못 선적하였다.

이를 확인한 바이어는 수출자에게 항의하자 수출자는 즉시 잘못된 모델 전량 손해를 감수하며 항공으로 교체하였다.

이에 바이어는 수출상의 성의에 감동하여 현재까지 5년 간 구매선 전환 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사례 2>

국내 A사는 아르헨티나 T사와 수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바이어가 주문한 모델과 다른 모델을 사전통보 없이 선적하였다. 바이어 주문모델이 단종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바이어는 수출자에게 모델 변경을 항의하고 전량 반송을 요청하였다. 바이어는 변경된 모델은 자사가 현지 거래선에 약속한 사양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US\$백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6,909	16,142	2,491	3,434	8,873	10,208
- M&A	14,566	5,290	1,722	1,115	2,131	3,888
- 자본형성	12,343	10,852	769	2,319	6,742	6,320

자료원: 아르헨티나 생산연구원(CEP) 외국인 투자동향 최신 자료(2006. 8월 기준)

- 2005년 외국인 투자는 총 102억불을 기록하였다.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본형성 투자는 공장증설 53억불, 신규 공장 설립(green field) 10.2억 불로 63.2억 불을 기록함으로써 2002년 경제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외국인 투자가 회복되고 있다.
- 한편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아르헨티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 2001년 21.5억 불 △ 2002년 18.9억 불 △ 2003년 42.5억 불 △ 2004년 43.5억 불 △ 2005년 42억 불로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와 차이가 있다.
- UNCTAD 통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2004년 4위, 2005년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의 뒤를 이은 5위를 기록하였다.

□ 광물·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외국인 투자 집중

- 분야 별로는 석유·가스·광업(추출활동) 38%, 사회간접자본 33%, 제조업 21%, 유통·서비스 9%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아르헨티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업종 별 투자액 누계비중은 석유·광업 37%, 유통 24%, 제조업 22%, 은행 10%, 기타 7% 등으로 석유·광업이 투자 대상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업종별로 중소형 투자보다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투자 분야인 석유·가스의 경우 Repsol-YPF, Pan American, Petrobras, Chevron Texaco, Total Austral, Pluspetrol 등이 주요 기업이다.
- 제조업은 아르헨티나의 식량자원을 이용한 식음료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 스페인, 미국, 프랑스 등이 외국인 투자 주도

- 2005년 대 아르헨티나 주요 투자국가는 1위 스페인, 2위 미국, 3위 프랑스, 4위 브라질 순이다. 스페인계 주요 기업은 Repsol(석유화학), Telefonica(통신), BBVA(은행) 등이 있다. 미국계 기업은 Nextel(통신), Cargill·Bunge(농업), Hilton(호텔), 브라질계 기업은 Petrobras(석유화학), 프랑스계 기업은 Carrefour(유통), PSA(자동차) 등이 있다.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업종별 투자 현황

대 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현황 (2005년 6월 누적 액 기준)

(단위 : 건, US\$천)

구 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합계
신고건수	27	4	11	1	4	1	48
신고금액	54,943	156,250	92,026	3,900	77,000	1,010	340,939
투자건수	21	4	10	1	4	1	41
투자금액	29,434	40,088	11,030	1,806	61,125	255	142,602

자료원 : 한국 수출입 은행 2006. 8월 통계 기준

나. 최근 기업별 현황

1)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 미미

-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액은 2006년 6월까지 41건, 1억 5625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 시기별로는 아르헨티나는 대미환율을 1:1로 유지하는 태환제 실시로 1990년대에 증가하였다가 경제침체기인 2000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며 2004년과 2005년에는 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고려할 때 광업·에너지, 전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의 획기적 증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전자, 수산업 위주 투자

-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는 전자회사 3사와 수산회사 12개사가 진출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 석유탐사분야에 (주)동원과 (주)골드오일이 투자하였다.
- 2006년 4월 기준 아르헨티나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전자 3개사와 (주)대우 등 종합상사 그리고 (주)골드오일 등이 진출해있으며 이외에 한성, 대림수산 등 12개의 수산회사가 합작법인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 한편 2002년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은 2002년 하반기 현지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수하였다. 현대종합상사,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철수하였고 기존 기업은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1인 주재 법인(지사)로 운영하였다.
- 2004년 이후부터는 아르헨티나 경기회복에 따라 한국기업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아르헨티나 경기회복으로 2004년 현지시장 재공략을 위해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일류 생산·판매 업체인 Audinac사와 제휴, 대우 브랜드 TV, VCR 제품의 현지생산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각 법인(주재상사)인원이 대폭 증원되는 추세에 있다.

아르헨티나 진출기업 현황

구분	진출업체	비고
전자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상사	대우 INT'L	
자원	(주)골든오일	원유·가스 생산판매 등 자원협력 사업
금융	국민은행	철수 추진 중
수산	한성, 대림수산 등 12개사	합작법인 형태

다. 진출기업 특기사항

- 1996년 아르헨티나에 진출해있는 (주)동원은 아르헨티나의 C.G.C(Compania General de Combustible S.A.)사와 공동으로 가스 및 원유를 발견하였다. 양사는 살타(Salta)주 북서분지에 위치한 산타 빅토리아 광구를 공동탐사, 개발해 오던 중 '95년 6월 시추에 착수, 5개월 만에 완료된 나카팀바이 1001정에서 가스 및 원유를 발견하였다.
- 살타 광구는 현재 동원 아르헨티나 지사가 아르헨 YPF 등 국내 3개 석유개발업체와 콘소시엄으로 개발 중으로 일일 800배럴의 석유를 생산 중인 곳이다.

33.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를 내국인 투자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투자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지 않는 반면, 특별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 이는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초 인플레이,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높은 외채, 만성적인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외자유치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 그러나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조치는 주요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시장개방 및 공기업민영화가 이루어진 90 년대의 1 년간 평균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시장폐쇄기였던 80 년대 전체의 유입액을 상회하고 있어, 90 년대 이후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 현재 매출액 상위 기업 중 60% 가량을 외국 기업이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아르헨티나는 메넴 전 정권 당시 전력, 상하수도, 공항 및 항만, 통신, 도로, 항공 등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00 억불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한 바 있다.

- 또한 '91 년부터 폐소화를 미화와 태환하도록 함으로서 물가가 안정되어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실 송금이나 원본 회수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왔다.
-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은 농, 축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제조업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하여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비교적 마진폭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98 년 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과 내수침체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어, 높은 실업률과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 2001 년 12 월 들어 예금인출 제한조치와 해외송금 제한조치가 취해졌으며, 2002 년 1 월 두알데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환제가 폐지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도 위협 받게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환율 위험에 노출되는 한편 과실송금이나 원본회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 신용도 또한 떨어진 관계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정체상태를 보였다. 2002 년 12 월 예금인출 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해외송금도 다소 완화됨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 년에 미화 환율은 2.9 ~ 3.0 페소 대가 유지되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 아르헨티나의 주요 500 대 기업의 현황을 보면 이중 300 개 이상이 외국 기업이다.
- 또한 '89 년부터 시장 개방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간 국내산업 보호 정책에 안주하던 아르헨티나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도태되어 버렸고, 시장개방으로 국내업체와 합작으로 생산체제를 유지하던 다국적 기업들도 2006 년 기준 100% 단독 투자로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외국인 투자제한

특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부문을 정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 등이며, 공업진흥법으로 신규 공장 설립 금지지역으로 수도권(부에노스아이레스) 내 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수도권 60 km 이내 지역, 로사리오, 코르도바 등 대도시 지역은 투자 인센티브 수혜대상 제외지역으로 정한바 있다.

라. 투자 진출 유의사항

- 강성 노조 및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 외형적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완전 개방되어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노조의 세력이 대단하며, 노동법이 까다로워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 기업하기 어려운 조세 구조
 - 부가세 환급이 최장 1 년 이상 소요되고 부가세(21%), 추가부가세(10%), 소득세(3%)를 선납하여야 함으로 운영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 부정부패
 -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국 별 반부패 지수’는 2.5로서 108 위에 랭크(2003 년 2.5 로 92 위)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 원자재 및 기계류 반입

등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우루과이 6.2(28 위), 브라질 3.9(59 위), 페루 3.5(67 위), 멕시코 3.6(64 위)

마. 투자허가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으로 별도의 투자 허가 절차나 규정은 없다.

34. 투자인센티브

가. 개 요

-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989 년 외국인 투자가 내국인 투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외국인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90 년부터 '93 년까지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가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1994 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르헨티나의 비교우위 및 대외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아르헨티나 헌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처럼 노동권, 기업 운영, 자산의 매매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투자 인센티브는 ► 일반 인센티브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인센티브 ► 특정 산업 장려를 위한 산업별 인센티브 등 3 가지로 대별된다.

나. 일반 인센티브

1) 초기 투자비 절감 인센티브

신규 투자(green field) 및 증설투자(brown field)에 대하여 공여되는 것으로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이다.

- 투자촉진법: 투자관련 부가세의 환급(accelerated reimbursement) 및 가중 감가상각이 2004 년 9 월부터 허용하였다. 수출기업은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비 수출기업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감가상각은 기업의 초기 조세 부담경감을 위하여 자본재는 대차대조표 상에 3 년간 구입으로 기재하고 인프라 프로젝트 감가상각의 경우 통상 기간보다 50%를 줄인다.
 - 부가세는 구입 후 3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된다.
- 대형 산업투자 수입 특례
 - 자본재 수입 시 영세율 적용, 관련 부품의 경우 자본재 가격의 5% 이하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감면)
 - 아르헨티나 경제 생산부 령 제 8/2001 호에 따라 2001 년 3 월 23 일부터 700 개 품목에 달하는 자본재 수입관세가 면제(감면)되고 있다.
-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 특례: 일반 부가세(21%) 보다 낮은 10.5% 적용된다.

2) 수출 촉진 인센티브

- 자유무역지대(FTZ ; Free Trade Zone)
 - 수입 관세, 통계세가 면제 되며, 전기, 가스, 상수도, 전화 요금에 대한 부가세와 국내세가 면제된다.
 - 아르헨티나 법률은 23 개 주와 4 개 특별지역 등 총 27 개의 자유무역지역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추붓(Chubut), 라 팜파, 멘도사, 미시오네스, 살타, 산 루이스, 산 루이스 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 환급제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 통계세, 부가세 등이 환급된다.
- 임시 수입 통관: 수출용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반입이 허용된다. 이때 재수출 담보용 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수출 시 이 증서는 취소된다.
- 보세구역 설정: 수출용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하여 무관세 통관을 위한 보세구역 설정이 가능하다.
- 세금 환급: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 생산되고 MERCOSUR 지역 이외로 수출되는 경우 최고 간접세의 6%까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세금을 환급

3) 중소기업 인센티브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 사회보장세 감면: 80 인까지 신규 고용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감면한다. 기간은 12 개월로 업종에 따라 감면 폭은 사회보장세율(23%)의 33% ~ 50%.
- 교육비 지원: 종업원 교육을 위해 연봉의 8%까지 교육비로 세금을 감면
-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 금융지원: 특혜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다. 산업 분야 별 인센티브

1) 광업 장려제도

광업 관련 탐사, 채굴 및 생산 과정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탐사(exploration) 투자 인센티브
 - 탐사비용 이중 공제: 광업법은 ‘광업 투자등기소’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 탐사 등 프로젝트 타당성 결정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소득세에서 100%로 공제하고 ▶ 연방 소득세법에 따라 이중으로 공제
 - 부가세 환급: 탐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를 12 개월 후 환급

- 채굴(extraction) 및 생산(production) 인센티브
 - 30 년간 재무 안정: 광업 투자등기소에 등록된 광업사업은 30 년간 별도의 세금 신설 또는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가중 감가상각: 기업의 초기 투자비 경감을 위해 3 년간 ▶ 장비, 건축 및 인프라의 경우 60%, 20%, 20% 비율로 각각 상각 하고 ▶ 기계, 차량 및 설비 등 고정자산의 경우는 1/3 씩 각각 상각 한다.
- 수입관세 면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공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은 면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채굴 및 생산 비용의 5% 까지 소득세에서 면제 또는 공제
 - 부가세 환급: 광물 생산을 위한 자본재 구입 및 인프라 투자에 부과된 부가세의 경우 광업 당국에 제출시 60 일 이내에 환급

2) 임업 장려제도

- 임업 투자법(법령 25080 호)는 1992 년부터 산림조성을 위한 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법령 28080 호는 2010 년까지 산림 300 만 헥타르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 30 년간 재무 안정: 임업투자 허가를 받은 자는 30 년간 별도의 세금 신설 또는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재무안정 기간은 농□목축□수산 및 식품부가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50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소득세 공제 특별 제도: 3 년간 가중 감가상각 옵션 제공
- 부가세 환급
- 보조금 지원: 500 헥타르 이하 부동산을 소유한 임업 투자자는 헥타르 당 상환 불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지역, 수종 등에 따라 다르다.

3)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제도

- 법령 제 25922 호는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생산 및 적용, 시스템 등에 대해 지원되나 유지보수, 정보 언어의 번역 및 변환,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S/W 판매를 위한 시장조사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센티브 내역
 - 재무안정 10 년
 - 고용주세 감면: 70%까지 비 환급 및 비 양도 성격으로 신용을 제공하고 이를 국세납부 시 사용가능
 - 소득세 감면 : 조사·개발, 품질인증, S/W 수출과 관련된 비용
 - H/W 및 IT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4) 관광

- 호텔 신축·개조·증축, 관광관련 레크레이션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부가세 가중 환급과 가중 감가상각 인센티브 제공

5) 자동차

- 2000 년 12 월 플로리다노폴리스 메르코수르 회담에서 ‘메르코수르 공동 자동차 정책’을 협정하면서 브라질과의 교역을 위해 2006 년까지 환율 정책 및 타 지역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35%의 공동관세 적용을 명시
- 상기 협정에서 메르코수르 내 무관세 교역을 위해 역내 생산 자동차는 최소한 역내 부품을 최소한 6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신형 모델은 그 요구사항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국내생산에 대해 생산자가 최소한 국내 부품의 20%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비율은 감소하여 2006 년까지 폐지하기로 되어 있음

6) 기타

생명과학(BT), 석유□가스 탐사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입법 중에 있음

라. 지역 별 인센티브

- 주 별로 공단, 자유무역지대 등과 같은 인프라를 제공
- 주 정부 별로 인센티브가 다름
 - 지방세 면제·감액, 인프라, 장비의 구입·임대·리스 등을 골자로 하나 주 별로 공여 인센티브가 다르고, 프로젝트 별로 달라 인센티브 공여에 대한 협상이 가능함

35. 타당성조사

가. 타당성 조사 체크리스트(예시)

1) 시장전망

- 현재와 미래 시장 전망, 경쟁업체, 제품주기,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

2) 사업계획

- 시장진출전략, 자금조달 계획 등

3) 기업형태 결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사 등

4) 기업 설립 요건

- 기업 형태 별 최소 자본요건, 자본 및 이윤의 국외반출 등 외환관리 규정, 자본조달 가능성 등

5) 설립절차

- 설립요건, 회사명 등록, 은행구좌 개설 여건 등

6) 자본구조

- 외국인 주식 제한, 자산의 리스 및 구매, 세금문제, 채무□주식 비율 요건,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지원여건 등

7) 위치결정

- 영업장소, 교통□통신 여건, 물류여건, 향후 확장 가능성 등

8) 생산관리

- 원자재 수급 가능성, 생산능력 설치가능성, 기계 및 장비 조달 가능성 등

9) 마케팅관리

- 마케팅 전략 및 방법, 가격정책, 광고 매체 선택, 유통채널, 수출 가능성, 부가세 요건, 운전비용, 현지 지불관행 등

10) 노무관리

- 노동력 수준과 임금수준, 급여 및 고용주세(사회 보장세), 노조, 훈련계획, 휴가 등 일반적 노무관리 사항 등

36.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가. 투자진출 형태의 결정

-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설립 관련 법률은 기업법(Ley de los Sociedades Comerciales / 법률 제 19550 호)이다. 기업형태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합자회사(Sociedad de Comandita; S.C.), 개인기업, 지사 등이 있다.
- 외국기업 투자 시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등 세가지가 일반적이다.
 -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큰 차이는 없으나,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설립 절차 면에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쉽고 주주 간 의견 조율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용이 하다.

나. 주식회사(S.A.)

- 최소 자본금 : 12,000 페소 (약 U\$4,000)
- 회사설립 승인
 -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아르헨티나 법무감사국(IGJ ;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주의 인적 사항, 회사명 및 주소, 회사설립 목적, 자본금 및 주주 별 구성, 관리 조직 및 내부감사기구, 주주총회 규정, 이익 및 손실 배분방법, 양자 및 제삼자에 대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 기타 원하는 경우 청산방법 등
- 최소 2명 이상의 주주 필요, 주주는 납입 자본금 내에서 책임을 가진다.
 - 주주는 국적 및 거주지 불문, 법인 또는 개인 가능
- 이사회는 회사관리를 책임, 이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의 수는 최소 제한이 없음 (1명도 가능)
 - 단, 주식이 상장되어 공공 소유인 경우는 최소 3명 이상 선임되어야 함
- 주식회사는 성격에 따라 정부 내 관리부서가 다르다.
 - 상장회사: 아르헨티나 증권거래소(Comision Nacional de Valores)
 - 은행: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 비상장회사(개인소유 주식회사): 아르헨티나 법무 및 인권부 산하 법무감사국 (IGJ;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

다. 유한 책임회사(S.R.L.)

-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 유한 책임회사는 출자자간 계약, 자본출자 조항, 관리책임, 출자자 변경, 내부 감사 요건, 청산 절차 등을 규정한 약관을 준비한다.
-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나 변경 필요 시 출자사원의 다수 동의(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 유한책임회사는 특히 자본금이 2,100,000 페소 이하일 경우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기간이 짧고 정부의 규제나 관리가 약한 편이다.
- 출자사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이다.
 - 출자사원은 국적 및 거주지 불문, 외국계 회사 또는 개인 가능

라. 외국기업의 지사

- 지사설립
 -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주소지 관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하며 아르헨티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무감사국(IGJ; Inspeccion General de Justicia)의 관리를 받음

- 해외 모기업 증명 (모기업의 정관, 협정계약서 등의 등록)
- 아르헨티나 주소지
- 아르헨티나 기업과 같은 등록 및 발간 요건
- 대표자 임명 및 등록

마. 투자방식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없고, 이윤의 재투자 의무, 내국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음은 물론 내국기업에 대하여 100% 주식 취득도 가능함으로 단독, 합자 등의 투자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기업설립 절차는 ‘투자진출 형태의 결정’ 항목을 참조)

37. 입지선정

- 아르헨티나 투자개발공사(ADI) 및 주정부 사전 접촉
 - 공장 설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센티브는 없으나 최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생산기지 유치를 위하여 세제 등의 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르헨티나도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유휴 시설의 활용과 고용창조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초기단계에 경제부 산하의 아르헨티나 투자 개발공사(ADI: Agencia de Desarrollo de Inversiones)를 접촉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아르헨티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주에 인구의 1/3 이 밀집되어 있어 제조업의 경우 상권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지에 투자가 필요하다.
 - IT 업종의 경우는 인텔 등의 다국적 기업은 코르도바(Cordoba)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전자업종의 경우는 특별관세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에 밀집해 있다.
-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공단 입주 검토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활발하기 때문에 동 단지 내에 입수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산업 공단 입주를 통해 공장을 유치, 운영하는 것도 여러 세금(부동산세, 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자유무역지대

- 아르헨티나 현행법상 23 개 주와 4 개 특별지역에 보세 지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의 경우는 주 전체가 특별관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라 플라타(La Plata)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항구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0 km 떨어져 있는 입지를 활용하여 물류 중심의 보세 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활동이 활발하다.
 - 이외 Comodoro Rivadavia, La Pampa, San Luis, Mendoza 등의 주요 지역에 보세 지역이 설정돼 있다.

-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위치한 특별관세지역으로 조립, 포장 및 가공 전문단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를 포함하여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 남미공동시장 협약에 의거, 2013년까지 이 지역에는 무관세로 상품 수출입이 가능하다. 이 주의 우수아이아(USHUAIA), 리오 그란데(RIO GRANDE) 등의 도시는 보세지역 및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다.
 - 현재 가전제품 조립생산은 물론 첨단 통신기기 및 컴퓨터 조립생산으로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평가절하 후 휴대폰 단말기 조립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 주요 생산업체 >

- Bright Star : 2003년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랜 구축에 필요한 라우터를 조립 생산
- BGH : 운영이 중단됐던 공장을 개조해 단말기 및 가전제품 등을 조립 생산 중. 현재 NOKIA, MOTOROLA, SAMSUNG 아르헨티나 지사에 납품하고 있음
- FOXMAN FUEGUINA : GRUNDIG, CROWN Mustang의 브랜드로 TV를 조립 생산
- NOBLEX : 가정용, 업소용 에어컨 및 TV, DVD와 같은 전자제품 생산
- AUDINAC : 대우일렉트로닉스 상표로 TV 및 VCR, DVD Player 등을 생산

공단명 : TIERRA DEL FUEGO FREE INDUSTRIAL ZONE

소재지		TIERRA DEL FUEGO주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섬으로 주를 형성하고 있음)			
부지면적		조성주체 주정부			
공단성격		- 연방정부 법률 19,640호에 의거 설립된 산업자유지대로 무관세수입지역 - 전자제품 전문 생산공단			
입주비용		대부분의 토지가 주정부 소유로 주정부와 토지매입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함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현재 입주 중			
교통	항만	USHUAIA 항구			
	공항	USHUAIA 공항			
전력		52,801KVA			
용수		제한 없음			
통신		전화선 가설에 애로 없음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인력조달 양호			
		- 임금수준: \$ 800/월 (대출초임, 연금세 등 포함)			
외국기업입주현황		국내외 60여 개 사가 공단 조성법에 의거 입주			
한국입주 기업명단		대우전자 (Audinac 사가 대우전자 상표로 생산 중) (LG는 공장은 유지하나 2004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규제현황우대조치		부품류 무관세 수입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전자제품 전문 조립생산단지로 부품류에 대한 무관세수입 - 시장을 목표로 한 전자조립업체 입주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Casa de la Provincia de Tierra del Fuego		
		주 소	Sarmiento 745. PB. Cap. Fed. Argentina		
		전 화	54-11-4322-7324	담당	Mr. Horacio Reyenda

Zona Franca La Plata

소 재 지		Juan Domingo Peron e Hipolito Yrigoyen S/N Edificio Ensenada, C.C. Nro. 1 (B1925BUA), Ensenada, P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부지면적		70ha				
입주비용		- 사무실: \$ 5 페소/m2 - 토지: \$1.80/m2 * 입주 시 4개월 보증금, 최소 계약기간 1년.				
입주가능시기		현재 입주 중				
교통	항만	La Plata Ensenada항구				
	철도					
	공항	EZEIZA 국제공항에서 80 km				
	도로	La Plata-Buenos Aires도로, 지대 내 간선도로 포장됨				
전력		현지 EDELAP 전력회사의 SUB STATION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공급 양호				
용수		300,000 lts/일/ha				
통신		디지털 9,999라인으로 시설 양호, 고속 인터넷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인력조달 양호				
		- 임금수준: \$ 500~700 페소/월 (공원), \$800~1,000 페소/월(경영직원, 대졸 초임, 연금세 등 포함) * 달러환율: US\$1불= \$3페소				
외국기업 입주현황		국내외 기업 총 180개사 입주 (식품, 약품, 화학, 사출금형 회사들이 있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특별한 입주자격이나 규제현황은 없음.				
우대조치		- 전력, 수도, 전화세 등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 60km 거리 - 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 중 유일하게 소득세 면제				
공단연락처		업체명	Buenos Aires Zona Franca La Plata S.A			
		주 소	Juan Domingo Peron e Hipolito Yrigoyen S/N Edificio Ensenada, C.C. Nro. 1 (B1925BUA), P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전화	54-221-468-0000	팩스	54-221-468-0014	담당자 Mr. Paulo Spata

□ 주요 산업공단

공단명 : PARQUE INDUSTRIAL PILAR

소재지		RUTA 8, km 60, PILAR. PCIA DE BUENOS AIRES, ARGENTINA					
부지면적		920ha 조성주체 LAGO VERDE S.A. (개인기업)					
공단성격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법률 제 10547호 및 1904/90, PILAR 시조례 1231/92에 의거 설립된 사설일반공단					
입주비용		US\$ 12/m2, 30%를 선불로, 입주계약 시 잔액 70%를 지불해야 함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입주 중					
교통	항만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서 60km, Campana 항구에서 65km					
	철도	5 km 거리에 철도선					
	공항	EZEIZA 국제공항에서 50km					
	도로	8번 국도에서 3km, 공단 내 간선도로 포장됨					
전력		현지 EDENOR 전력회사의 SUB STATION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공급 양호					
용수		240,000 lts/일/ha					
통신		디지털 1,000라인으로 시설 양호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인력조달 양호					
		- 임금수준: \$ 800/월 (대졸초임, 연금세 등 포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국내외 기업 총 131개사 입주 (식품, 약품, 화학, 사출금형 회사들이 있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 부동산세 면제(7년), 소득세 면제(7년), 지방세 면제(7년)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60km 거리로 입지양호					
공단연락처		업체명	LAGO VERDE S.A				
		주소	Av. Santa Fe 3996 Piso 14 Of. 115 (1425) Cap. Fed. Argentina				
		전화	54-11-4831-6220	팩스	54-11-4831-4402	담당자	Pres.Meyer Oks

공단명 : PARQUE INDUSTRIAL SAN FRANCISCO

소재지		Calle 13 No. 4769 Casilla De Correo 211 (2400) San Francisco, Pcia. Cordoba					
부지면적		184ha 조성주체 주 정부 법령에 의한 사설공단					
공단성격		71년 10월 연방 및 주 법률에 의거, 설립 인가된 사설공단					
입주비용		US\$ 0.70 -1.00/m2, 부지매입 후 공장건설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현재 입주 중			
교통	항만	Santa Fe 항구에서 130 km					
	철도	Ferrocarriil Gral. Belgrano					
	공항	Cordoba주 국제공항에서 200 km, Santa Fe 공항에서 130 km					
	도로	158번 국도에서 3.5 km, 공단 내 간선도로 포장됨					
전력		6,890KVA, 전력 공급 양호 (5,000Kw/h)					
용수		공급시설 양호					
통신		디지털 100라인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인력조달 양호					
		- 임금수준: \$ 1,500/월 (대졸초임, 연금세 등 포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국내외 기업 총 36개사 입주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부동산세 면제, 소득세 면제, 산업세 면제(10년), 인지세 면제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CORDOBA주는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입주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Cooperativa de Provision de Electricidad Y Otros Servicios				
		주소	Calle 13 No 4769 (2400) San Francisco, Pcia. de Cordoba, Argentina				
		메일	parqueindustrial@arnet.com.ar				
		전화	54-3564-421803	팩스	54-3564-421803	담당자	Mr. Nelson Luis Basso

38. 공장설립

가. 공장 신설

- 부동산 회사 접촉
 - 아르헨티나 투자개발공사(ADI) 및 주정부 접촉을 통해 공장 부지를 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은 대부분 저개발 지역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등 대도시 인근에 공장 신설을 위해서는 장소선정부터 투자 당사자가 직접 물색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부동산 회사를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부동산회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체인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 정보의 입수는 용이한 편이나 비용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
 - 부동산 중계료는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의 4%(부가세 21% 별도), 임대차 경우는 임대차기간의 총 임대료의 5%(부가세 21% 별도) 이다.

나. 공장 임차

- 유희 생산시설 활용
 - 유럽, 일본계 전자업체들 중 상당수가 기존의 유희시설을 임대한 후, 원부자재를 도입하고 단순 조립하여 아르헨티나산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이는 '89년 시장개방으로 국내산업이 침체하여 미 가동 상태에 있는 공장이 많아 단기적으로 공장 신설기 보다는 기존의 유희 생산공장을 임대하여 1차 조립 등의 시장성을 검토해보고,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 최근에는 평가절하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내생산 비용이 인하하여 많은 다국적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남미 지역의 담당지사 또는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 가동 상태에 있었던 공장들도 재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 아르헨티나 정부기관

- ADI(Agenica de Desarrollo de Inversiones): 아르헨티나 투자개발공사
 - 주소: Av. Julio A. Roca 651 - Floor 5° Office 20- (C1067AAB) Ciu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 Tel : (54-11) 4349-3442/ 3313/ 3315
 - Fax : (54-11) 4349-3453
 - E-mail: adi@mecon.gov.ar
 - 홈페이지: www.inversiones.gov.ar
 - 성격: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산하기관으로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
- AFIP(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 아르헨티나 연방세입 청
 - 주소: Av. de Mayo 1317 (C1085ABP) Ciudad de Buenos Aires
 - Tel : 4347-3208
 - 홈페이지: www.afip.gov.ar
- Administracion General de Aduanas: 관세청
 - 주소: Azopardo 350 --PB- (C1107ADD) Ciudad de Buenos Aires
 - Tel : 4338-6400

- INTA(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Agropecuaria): 농업기술청
 - Rivadavia 1439 (C1033AAE) Ciudad de Buenos Aires
 - Tel : 4338-4600/4682
 - 홈페이지: www.inta.gov.ar
-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 공업기술청
 - 주소: Av. Gral. Paz 5445 (B1650KNA) San Martin- C.C. 157
 - Tel : 4724-6200
 - 홈페이지: www.inti.gov.ar
- INPI(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산업재산권 청
 - 주소: Av. Paseo Colon 717 (C1063ACH) Ciudad de Buenos Aires
 - Tel : 0800-222-4674
 - Fax : 4343-5286
 - 홈페이지: www.inpi.gov.ar
- SENASA(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nimal y Calidad Agroalimentaria): 검역 청
 - 주소: Av. Paseo Colon 367 (C1063ACD) Ciudad de Buenos Aires
 - Tel : 4331-6041/48
 - 홈페이지: www.senasa.gov.ar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법률 서비스

- 최병수 합동법률 사무소 (Choi & Asociados)
 - 주소: Avenida Nazca 648, Piso 2, (C.P. 1406),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팩스: (54-11)4612-2260/4716
 - E-mail: choilorenzo@yahoo.com
 - 서비스 내용: 회사설립登記, 노동문제 등
- 임정신 종합법률 회계사무소
 - 전화: (54-11)4613-5453 / 4611-6554

나. 회계사

- Dr. Jorge Patricio Dennin
 - 주소: Paraguay729, Piso6 Of. 25, C.A.B.A.(1148)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 전화: (54-11)4901-8658
 - 서비스 내용: 회계 서비스
- 전승훈 공인회계사
 - 전화: (54-11)4952-9156 / 1199
 - E-mail: studio@hoon.com.ar

41. 노무관리

가. 노동법 및 노조현황

- 2004년 4월에 노동법(법률 제 25877 호)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 수습기간을 180 일에서 90 일로 축소
 - 수습기간인 근로자는 15 일전 통지 조건으로 해고 보상금 없이 해고 가능
 - 5년 이상 근속 근로자 해고 시 2개월 전 통지 필요(5년 이하는 1개월 전 통지)
 - 해고 보상금은 근무 년 수 당 1개월 분 급여 지급(5년 근속인 경우 5개월 분 급여)
-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1,317 개의 공식노조와 공식 등록이 안 된 1,104 개의 비 공식 노조가 있다. 노조 가입자만 1,320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원의 60%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 고용계약 기간

- 고용계약은 특별한 법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신계약’으로 간주
-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승인된 단체협약으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는 6개월 수습기간을 승인된 단체협약에 의해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다. 급여 및 임금 수준

- 최저 임금: 월 630 페소, 시간당 3.15 페소(2005. 7월 협약 기준/U\$ 1 = 3.0 페소)
 - 2006년도 최저임금은 교섭 중으로 800 페소 수준으로 인상 예정임
- 평균 급여: U\$414 (광업 U\$ 1,289 ~ 농업 U\$266) (2005년 기준)
- 보너스(aquinaldo): 월 급여 이외 연 2회(6월, 12월) 월 급여의 50% 지급 의무

라.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 근무시간: 주 48 일 시간, 야간근무 7시간 교대 의무
- 초과 근무수당
 - 주중 초과 근무: 50% 추가
 - 주말(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 100% 추가

마. 해고 수당

- 근로자는 범죄 행위 연루 등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되지 않음
 - 아르헨티나에서 직원 해고 시 크고 작은 소송으로 제기로 해고가 상당히 어려우며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해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해고 보상금은 근무연수 1년에 1개월 급여 지급

바. 휴가일수 (Calendar day 기준)

- 5년 이하 근속 직원 : 연간 14 일
- 5 ~ 10년 근속직원 : 연간 21 일
- 10 ~ 20년 근속직원 : 연간 28 일
- 20년 이상 근속직원 : 연간 35 일

사. 사회보장제도

- 고용주는 23.0%, 근로자는 11.0%를 부담한다.
 -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액의 합은 4,800 페소가 최대로 이를 초과할 때는 4,800 페소만 지급한다.
 - 고용주 부담액은 23.0% 이나 행정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24.0%로 계산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세율 내역

구 분	고용주 부담액	근로자 부담액	비 고
연금기금	11.7%	8.0%	
가족수당	4.4%	-	
실업수당	0.89%	-	
의료보험	6.0%	3.0%	
계	23.0%	11.0%	

42. 조세제도

가. 개 요

- 아르헨티나 조세는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연방정부), 주세(주정부) 및 시세 (시청)로 구분되며 납입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 관세를 제외한 제 세금 징수하는 총괄기관은 연방세무청(AFIP)이며 직접 징수 기관은 세무서(DGI/Direccion General Impositiva)이다.

조세 구분

구 분		기본세율	비 고
국(國)세	소득세	법인소득세 35.0% 개인소득세 9 ~ 35%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부가가치세	21.0%	식품 등 10.5%, 통신 등 27%
	금융거래세	0.60%	
	재산거래세	1.50%	
	개인재산세	0.5% / 0.75%	20 만 페소 기준 차등 적용
주(州)세	매출세	1% ~ 3%	산업 유형별로 차등 적용
	인지세	0.5% ~ 2.5%	
	부동산세	주마다 다름	
시(市)세	* 영업허가세 등		

자료원: 아르헨티나 투자진흥공사 Investor Guide(2005. 11월) 정리

나. 주요 세금 내역

1) 국 세

- 법인세
 - 세율: 35.0%
 - 과세대상: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기금, 외국법인 및 지사 등 아르헨티나 소재 모든 법인
 - 과세소득: 거주자(resident)의 경우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 아르헨티나 발생 소득에 대하여 부과, 원천징수 형태로 징수
- 개인소득세
 - 세율: 9.0 ~ 35.0 %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과세대상: 아르헨티나 소재 모든 개인
 - 과세소득: 거주자는 해외소득 포함, 비거주자는 아르헨티나 발생소득에 대해 부과
- 부가가치세
 - 세율: 21.0%(1995년 4월 18%에서 인상)
 - * 단, 통신, 가스, 전기 및 상하수도에 대하여 27.0%, 자본재,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신문, 잡지, 의료, 특정요건을 갖춘 이자 및 수수료는 10.5% 적용
 - *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세 면제
- 금융거래세 (일명 수표세)
 - 세율: 0.6% (2001년 4월 법률 제 25413 및 제 25414 호)에 의거 금융거래세 신설
 - 급여구좌 및 대출구좌 금융거래 시는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
 - * 금융거래세는 IMF 및 아르헨티나 산업계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단기간 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산거래세
 - 세율: 1.5%
 - 재산권 이전에 따른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성격은 아님
- 개인재산세
 - 세율: 102,300 ~ 200,000 페소 0.5%, 200,000 페소 초과 0.75%
 -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의 경우는 거주자는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비거주자는 개인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2) 주 세(州稅)

- 매출세
 - 세율: 주 정부 조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차 산업(농목축, 어업, 광업) 1.0%, 2차 산업(제조업, 건축업) 1.5%, 3차 산업(서비스, 유통)에는 3.0%가 부과됨
- 인지세: 0.5% ~ 2.5% (거래성격에 따라 세율 다름)
- 부동산세: 주 정부에 따라 적용세율 상이

다. 기타 제 세금

- 수입관세: 품목에 따라 5.0 ~ 35.0% 부과
- 수출세: 수출 품목에 따라 5.0 % 이상 부과
- 추가 부가세: 10% (수입 시 일종의 선납세로 납부되며 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내국세: 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에 내국세 부과(수입품의 경우 내국세율이 20% 일 경우 CIF 가격의 39% ~ 40% 부과효과)
- 사회보장세: 고용주 23%, 근로자 11% 부담 (세부내용은 노무관리 항목 참조)

43. 외환관리

가. 외환 관리제도 개황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Banco Central de la Republica de Argentina)이 외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당 3 페소 이상의 환율유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은 수출확대를 위한 외환 가득원 확보가 목적이다. 2002 년 부터 경제성장에 따라 외환규제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외환 관리제도는 외환의 유입과 송금 분야별로 규제 및 완화 대책이 중앙 은행의 지침 또는 통지문 형태로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홈페이지(www.bcra.gov.ar)영문정보 또는 무역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외환 규제 주요 사례

-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120 일 이내에 페소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수출업자는 환전 시 매도환율로 환전하고 원자재 구입 등으로 달러화 필요 시 매입환율로 환전하여야 함으 로 환차를 부담하여 함)
- 수입업자는 소비재 등 수입 시 수입물품이 아르헨티나 항구 도착 전에 대금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가 50 만 불 이상 투자 또는 거주자가 100 만불 이상 해외투자 시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 500 만 불 이상 자본금 송금,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의 지급 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배당소득의 해외 송금을 위해 중앙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외환 관리제도 연혁

- 2001 년까지 외환 관리제도는 고 인플레이를 진정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해 1991 년 시작 한 ‘태환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1992 년 화폐개혁을 통해 U\$ 1 과 1 페소를 태환 하 도록 하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된 바 있다. 태환제도 시행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 폐소화 구좌는 물론 외환 구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은행과 환전소 등을 통하여 외화를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었다. 수출입 대금결제도 외환통제가 전무하며 AT SIGHT L/C 를 개설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원금 회수나 과실송금 시에도 해외송금액의 제한이 없었으며 주식배당 원천징수(주식배당세)도 없었다.

- 1999 년 하반기 메넴 정권 말기에는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의 평가절하에 따른 경쟁력 하락과 폐소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 달러를 아르헨티나의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미국과의 사전 협의 부재, 내부적인 반대 및 문제점 지적 등으로 성사되지 못한바 있다.
- 2001 년 델라루아 정권하에서 경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예금인출 억제 및 해외송금 제한과 경제달러화를 골자로 하는 긴급조치가 발동되었다.
- 델라루아 대통령이 사임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한 두알데 대통령은 1991 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태환제의 폐지를 선언하면서 ‘이중 환율제’를 도입하여 고정 공정 환율과 변동 시장환율을 실시하다가 2002 년 2 월에 단일 자유 변동환율제를 시행 하면서 공정한환율제를 폐지했다.
- 2002 년 말기부터 미화 대비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초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외환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경제부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외화 획득 및 수출세 징수 등 재정 확충이 가능했으나 환율의 지나친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달러화 채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금융 기관들은 지속적인 환율 하락을 기대 하고 있다.

44. 이주정책 가이드

가. 주택 구하기

- 아르헨티나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법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적법한 비자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민권의 경우 아르헨티나에 2 년 이상 지속 체류한 모든 18 세 이상의 외국인은 시민권 취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아르헨티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자, 국내 황무지개간 계획자, 아르헨티나 국적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 부동산의 취득 또는 임대를 위하여서는 부동산업자와의 접촉이 필수적이다.
- 최근에는 일부 건물 소유주가 직접 원매자, 임대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빈부차가 극심하여 부동산이 일부 소수에게 집중되어 부동산 소유주들은 번거로운 거래관계를 직접 담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 임대 또는 매각을 원하는 건물에는 매매 또는 임대라는 간판이 건물에 돌출형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전부 부동산 업자가 부착한 것이며, 연락처는 부동산 회사의 주소이다.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원매자는 주인과 직접대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협의를 부동산 업자와 행하게 된다.

-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 임대 총액의 5.0%(부가세 별도) 이고 보증금은 2 개월 해당금액이다. 매매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3 ~ 4% (부가세 별도)이다.
 -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연장 시(예: 3 년 임대 후 추가 3 년 연장 시)에도 추가 연장기간에 대하여 부동산업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 임대 시 세입자는 보증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인 또는 세입금액에 따라 보증인은 1 ~ 2 명이 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부동산은 보증인 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다.

나. 은행구좌 개설 및 신용카드

- 은행 구좌 및 신용카드 개설 시에는 적법한 신분증명서, 납세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 2001년 외환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내에 은행구좌 개설은 굉장히 까다롭고 은행 입출금 시 금융거래세(0.6%) 부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구좌개설 및 수표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다. 전화 및 핸드폰 신청

- 전화 및 핸드폰 신청을 위하여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및 법인 등기부 등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 핸드폰의 경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DNI'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핸드폰 신청이 어렵다.
- 국제전화의 경우는 할인경쟁이 치열하므로 국제전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라. 생필품 조달

- 아르헨티나의 경우 육류, 채소, 과일 등이 풍부하여 생필품 조달에 어려움은 없다. 생필품 조달은 집 근처의 소매점 구매 위주에서 점차 대형할인 매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대형할인 매장으로는 아르헨티나 대형 슈퍼마켓인 코또(Coto), 다국적 기업인 까르푸(Carrefour), 월마트(Wal Mart), 줌보(Jumbo), 노르테(Norte)가 주요 지역에 매장을 개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 최근에는 중국계 소매점(일명 Autoservicio)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4,500 개에 달할 정도로 성업 중이며,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키오스코(kiosko)가 곳곳에 있어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마. 한국식품 조달

- 아르헨티나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이 반대이기는 하나 기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대부분의 곡물과 채소류는 현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의 교민 수는 2 만 명 내외로 이민역사는 40 년이 되어 한국식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 조미료 및 기호식품 등은 교민 업체가 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격은 국내에 비해 고가이지만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다.
- 한국 식품과 생필품은 한인촌인 백구지역 - 현지 지명으로 바호 플로레스(Bajo Flores)-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의류 및 섬유 상가 밀집지역으로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온세(Once), 아베자네다(Avellaneda) 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한인촌과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중국인 촌에서도 한국생필품의 일부를 구입할 수 있다.

바. 레저, 스포츠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서울의 1/3 크기로 인근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포함하여 'Gran Buenos Aires'라고 부르며, 인구도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라플라타(La Plata)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반경 600 ~ 800 km 의 평원을 끼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산이 약 800 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바다도 40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은 대부분이 초지로 축구장이 산재하여 있어 서민들은 축구를 즐기며, 중산층 이상은 골프와 경마, 상류층은 승마, 폴로, 바다낚시, 사냥, 스키 등을 즐긴다. 골프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여건이 좋다.
- 아르헨티나를 대표할 스포츠는 축구다. 마라도나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를 배출하여 축구 관련 TV,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잡지 등이 많이 있다.

사. 치 안

- 1990 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남미 국가 중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중의 하나였으나, 90 년 초 경제침체 영향으로 치안상태도 악화되었다.
-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납치사건, 강도, 살인 사건 등이 주류로 대법원 판사, 현직 장관 등도 집 부근에서 강도를 당하는 등 치안사고 발생한 바 있고, 특히 한인촌(일명 백구) 부근도 강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외국인의 경우 택시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 택시를 이용할 경우 가급적 정차하여 있는 택시보다는 운행 중인 택시가 보다 안전하다는 평이며, 택시 보다는 Remis(아르헨티나의 독특한 교통수단으로 콜택시의 일종으로 일반 개인 승용차 형태, 호텔이나 업체 사무실 등에 부탁하면 쉽게 불러주고 시내 전 지역에 Remis 사무실이 산재하여 있음)가 보다 안전하다.
- 야간에는 도심이나 변두리, 인적이 드문 도로로 이동하기에는 위험하다.

아. 자녀 교육여건

- 1993. 4 월 연방교육법 제정에 따라 유치원(Inicial), 초·중등과정(Educacion General Basica - EGB) 9 년, 고등과정(Polimodal) 3 년, 대학과정(Superior)으로 학제가 변경되었다. [종전 초등과정(Primaria) 7년의 의무교육 및 중등과정(Secundaria) 5년]
- 연방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고등과정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이 대부분 무료이며, 유치원 5 세 과정 및 초등과정(EGB) 9 년은 의무 교육이다.

○ 학 제

Initial	Educacion General Basica			Polimodal	Superior
(유치원 과정)	(초, 중, 고 과정)			(고교 과정)	(대학 과정)
2003-04-05	1 · 2 · 3	4 · 5 · 6	7 · 8 · 9	1 · 2 · 3	(전공마다 이수과정이 다름)
연령별	EGB 1	EGB 2	EGB 3	최저 3 년, 기본 5 년	전문대 및 대학
	의무교육(10 년, 5 세 유치원 과정 포함)			직업 선택 전 교육	전문직업 교육

- 대학의 경우는 철저한 학점제로 운영되어 졸업 비율이 20% 내외에 불과하다.
- 학기는 3 월초에 개학하여 12 월초에 종료하며 방학은 겨울방학이 7 월에 2 주, 여름 방학이 12, 1, 2 월에 약 10 주임

○ 주요 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Lincoln School	Andres Ferreyra 4073 (1636) La Lucila B.A. Argentina	(54-11) 4790-2117

- 링컨스쿨(Lincoln School)은 미국계 학교로 외국 상사주재원 및 대사관직원 자녀가 대부분 취학하고 있는 학교이며, 초, 중,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 중등학교 이상은 완전히 영어로만 교육하고 있으며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등에 소재한 대학에 취학은 가능하나 현지 교육법에 의한 학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개학은 8 월부터이고 익년도 7 월에 종료하며 겨울방학은 6, 7, 8 월에 7-8 주, 여름 방학은 12, 1, 2 월에 8 주가 있다.
- 수업료는 2006 년 고등학교 기준 기부금 U\$6,000, 연 수업료 U\$14,900 으로 비싸다.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는 전일제 학교로서 1995 년 한국정부로부터 인가를 획득한 교육 기관이며, 교지는 3,500 m², 교사 연건평은 830 m², 교실 수는 22 개, 특별교실 4 개 강당, 식당 등이 있다.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Instituto Coreano Argentina(ICA)	Av. Asamblea 1840 (1406), Cap. Fed., Argentina	(54-11) 4633-8598 4631-6027

- 교육은 한국어 · 스페인어 병행이며,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수도 160 명에 달하고 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중고등학교는 2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Colegio Nacional de Buenos Aires	Bolivar 263 (1066) Cap. Fed. Argentina	(54-11) 4331- 0733/0734/9290

- 부에노스아이레스 중고등학교 출신의 많은 유명인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은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현지 한인교포들 사이에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매년 취학하기 위해 일년 동안의 입학 시험과정을 거친다.